

2025.05.29.(목) Signal Report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2025.05.29.(목) Signal Report

<전일 시장 정리>

전일 시장 정리는 한국에서 오직 시그널리포트만 진행하고 있는 '개인투자용 정리'입니다.
때문에 아래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어야 '전일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리포트는 '시그널 이브닝'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있으며, 익일 서머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분명 실력 향상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최신의 기사를 봐도 과거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강한 배팅을 할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꼭 숙지해 주세요.

[시장 정리]

●전일 시장에서는 이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 이차전지 >

#삼성SDI-GM, LFP배터리 생산라인 도입 협의

●삼성SDI와 GM이 2027년 완공 예정인 미국 인디애나 합작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 도입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6%,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 +10%, 코스모신소재 +8% 등 상승했습니다.

●헝가리 공장의 LFP배터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3961억원을 투입하고,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는 3541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인 삼성SDI +8%, 전고체 관련주 이수스페셜티케미컬 +6%, 메가터치 +13%, 상신이디피 +9% 상승했습니다.

●3000억원 규모로 LFP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는 엘앤에프 +16%, 엔캠과 대주전자재료 +9%,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3%가량 높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LMR(리튬망간리치) 배터리 양극재 개발을 완료한 포스코퓨처엠 +13% 상승했습니다.

●나트륨 이온배터리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전자석 탈철기를 공급하는 대보마그네틱 **상한가**, 나트륨이온 배터리 ESS 시장 공략에 나서는 애경케미칼 +25%, '나트륨이온 배터리용 폴리올레핀계 수계 세라믹 코팅 분리막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 중인 더블유씨피 +10% 상승했습니다.

●LFP배터리 시장 규모 성장 기대감에 CM파트너의 2차전지 사업부를 인수하며 LFP 배터리 및 나트륨이온 배터리 분야에 진출한 자이글 **상한가**, 메가터치 +13%, 탑머티리얼 +11%, LFP 전용 순환 믹싱 시스템을 개발한 티에스아이 +4% 상승했습니다.

< 퓨리오사AI >

●퓨리오사AI가 MDS테크, 비큐AI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JW-코난 AI 넥스트리더 펀드'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비큐AI +23%, MDS테크 +19% 상승했습니다.

#퓨리오사AI, 7월 국내 대기업에 AI 반도체 공급

●퓨리오사AI가 오는 7월 LG로 추정되는 국내 대기업에 AI 반도체 '레니게이드'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에 포바이포 +12%, DSC인베스트먼트와 나우IB +8% 상승했습니다.

< BIO >

#ASCO서 'AI 대사체 기반 조기 암 진단 기술' 공개

●오는 3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ASCO 2025'에서 자궁경부 상피내 이형성증 및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한 비침습적 대사체 기반 바이오마커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하는 온코크로스 +17%, 신규 코로나 변이 LP.8.1 기반 백신을 개발 및 생산 진행 중이라고 밝힌 셀리드 +5%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에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의 유럽 임상3상 톱라인 결과 발표가 예정된 HLB 테라퓨틱스 +10%, HLB +2%,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의 기술 장벽이 높은 약물 링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투셀 +2% 상승했습니다.

< 개별주 >

#대선 #증시 부양 #지주사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 무양을 위한 정책 발표로 저PBR의 밸류 매력이 높은 지주회사가 부각 받으며, 코오롱 +15%, HD현대와 SK +12%, SK스퀘어 +7%, 한화 +9% 상승했습니다.

●2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유증을 통해 비엔에스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빛과전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내달 제4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아이티센엔텍 +18%, 아이티센글로벌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비트맥스 +15%, 이마트로부터 쓱페이와 스마일페이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 중이란 보도에 카카오페이 +8%, 카카오 +1% 상승했습니다.

●K뷰티와 K팝을 연계하고, K푸드 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실리콘투 +7%, 분기 최대 실적 달성 및 EMS와 배터리 신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파워넷 +14% 상승했습니다.

●베트남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및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공장에 공급을 확대하려는 나우로보틱스 +8%, 캐나다 양자 기업 'BTQ 테크놀로지'와 콜드웰렛 보안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한 아이씨티케이 +5% 상승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기대감에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과 스테이블코인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인 페어스퀘어랩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정보인증 +7% 상승했습니다.

QUIZ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문제 1] 나트륨 이온배터리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전자석 탈철기를 공급하는 OOOOOO상승했습니다.

[문제 2]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의 기술 장벽이 높은 약물 링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OOO 상승했습니다.

[문제 3] 지주사 3종목을 작성해주세요.

1번 정답: 대보마그네틱 / 2번 정답 : 라닉스 / 3번 정답 : 코오롱, HD현대, SK, 한화, 콜마홀딩스, LS, LG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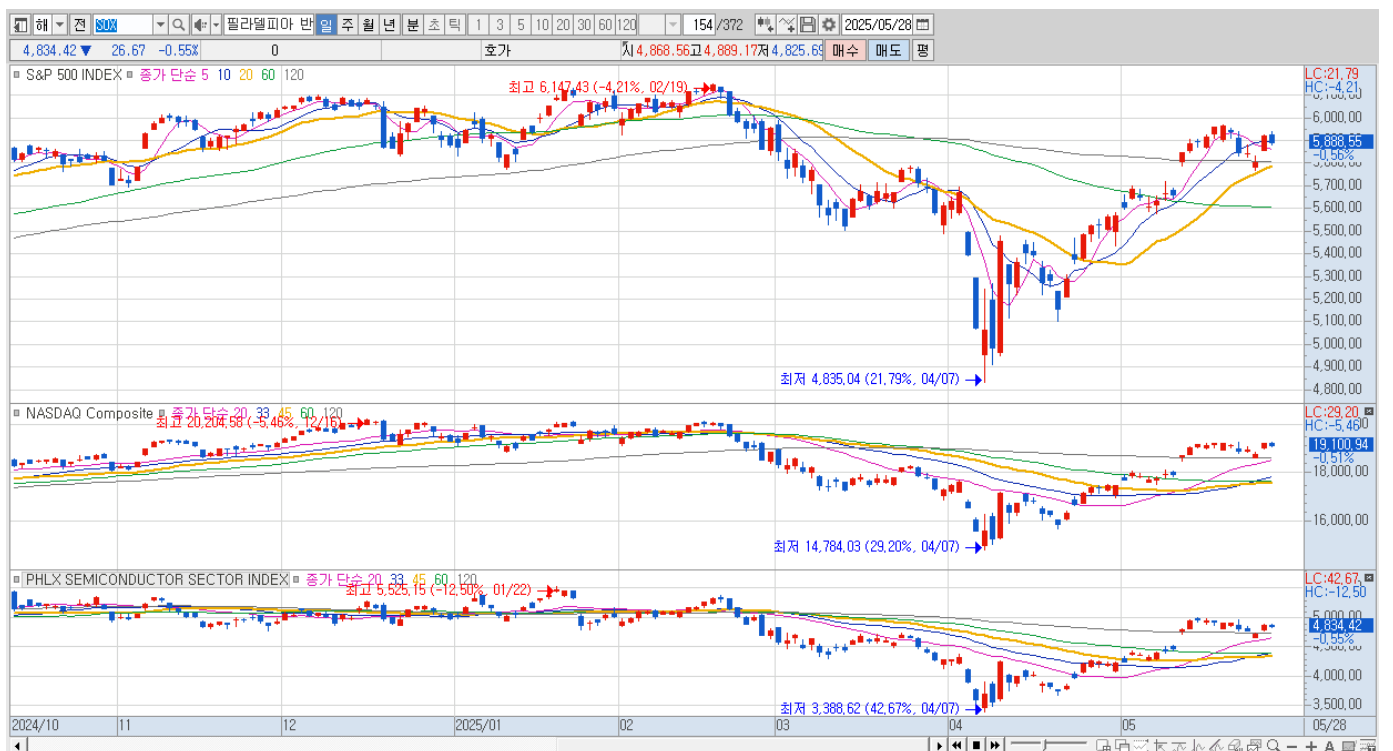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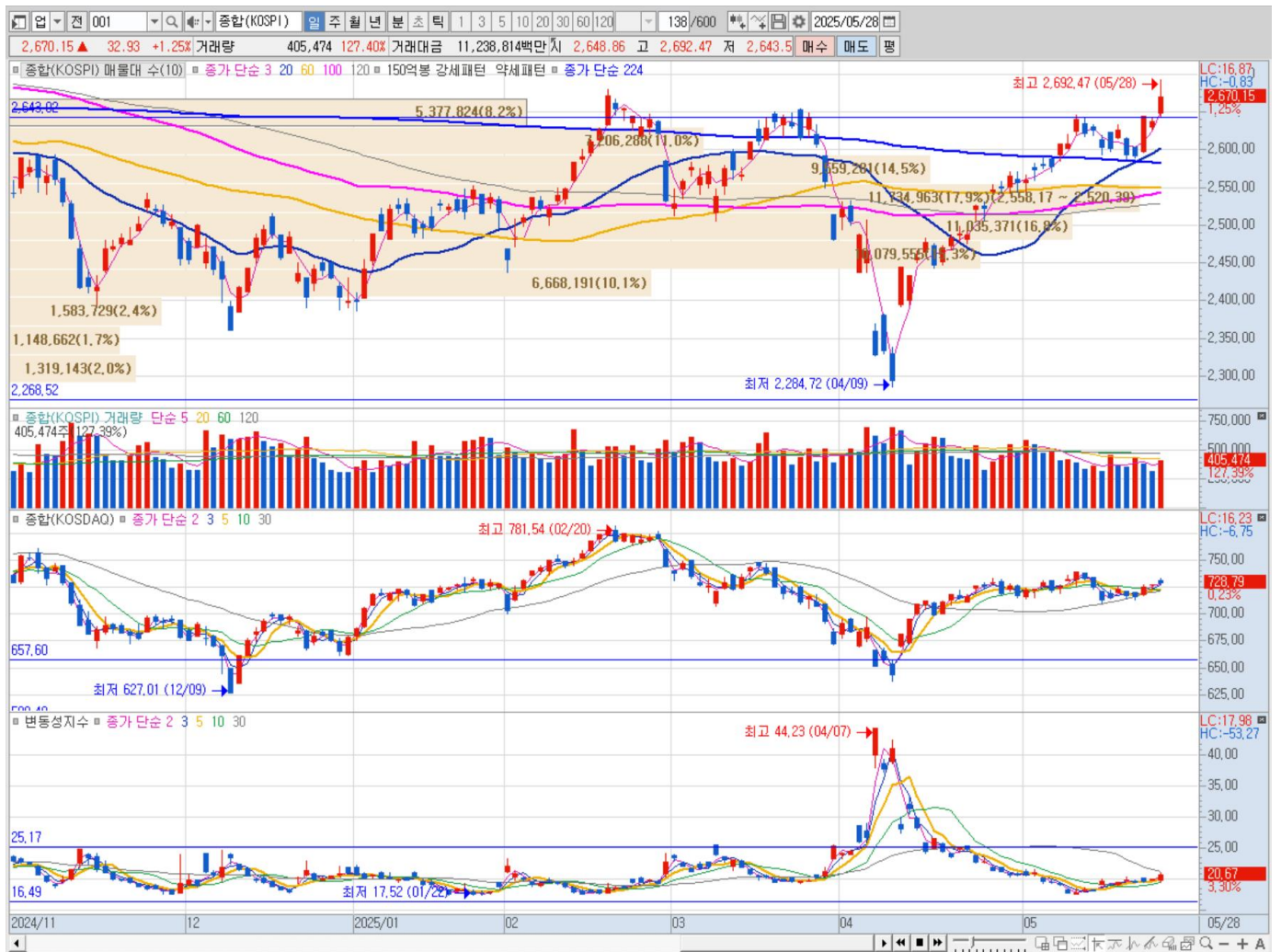
< Daily point >

'Daily Point'는 당일 증시의 시황을 설명 드리는 코너입니다.

시황을 알아야 업황을 예측할 수 있고 종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윙과 장투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하루 쌓아가는 'Daily Point'를 통해 주식 실력 근원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굿모닝 시리언즈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저항선을 포용 하고 뚫어 올렸네요. 하지만 방심은 하지 맙시다. 시장 반등의 시그널인가, 아니면 단기 소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국내 최고의 선수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을 굴리는 기관투자자부터, 글로벌 운용사에서 정말 많은 자산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또 한국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퀀트 트레이더.. 물론 이들은 모두 유튜브 등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들에게 돈을 맡기고 운용을 부탁했죠.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성과보수까지 계약하고 운용.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 군데 모두 손실이었습니다. ^^;;

선수들이라고 꼭 저의 돈을 불러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역시 자산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굴리는 게 '차라리' 속 편하더라고 생각하게 된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다 맞을까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잘 안되고, 답답하고, 성장하려고 매일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저를 괴롭히고,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게 확신인가.. 고집인가' 라는 자문입니다.

급한 분들을 위해 시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2차전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추세적 상승인가 궁금할 겁니다. 제가 이미 책에서 써둔 내용인데요.

1. 오늘 왜 올랐지?
2. 내일도 1번의 이유가 계속되나?
3. 얼마나 1번의 이유가 계속되나를 알면 됩니다.

오늘 2차전지가 오른 것은

1. 일론머스크의 테슬라 올인 선언
2. 미국 IRA 세액종료 시점 연기 법안 통과
3. GM의 LFP배터리 생산 요청(LG엔솔+삼성SDI)

그런데 보면, 1-5번 대부분 국내 자체의 힘이 아닙니다. 다 미국 관련입니다. 어제 데일리포인트에서 원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국내 이슈가 아니라 미국 이슈 때문에(원전은 실제 매출까지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 미국은 원전 한다 한다 하지만, 태양광+풍력이 매우 더 효율적인 국가입니다) 오른 것이므로..

4. 기술적 반등(더 빠질 자리도 없다)
5. 외국인 및 기관의 울초 이래 가장 큰 반등

기술적 저점과 뉴스 모멘텀이 겹치면서 4,5를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2차전지 제대로 반등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소비자 신뢰지수(컨퍼런스 보드)가 예상 외 상회했습니다. 이는 관세 유예가 만들어낸 시너지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금리가 상승 중입니다. 채권 자경단도 나타났습니다. 단기 실적 피크 논란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주식은 상승 중이지만, 구조적 랠리로 전환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도? 매수? 종목선택? 다양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일단 시작은 '종목 선택'이겠죠. 클래스 강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종목을 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결정을 했거나, 시장이 역방향으로 흘렀을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된 결정이더라도 시장의 상황이 바뀌어서 위기가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분명 누군가 사라고 머리에 총들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 이유로(누군가의 추천이 됐던, 투자 아이디어가 됐던) 사고서는 **'살아남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건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조건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가만 있죠...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요(대부분은 원망이죠. 남탓).. 저도 자주 판단 미스를 합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한 무언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내 자산이 살아 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자산이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내 심리적 상황이 **'확신(conviction)인가 고집(stubbornness)이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인간관계에서건 살아남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투자는 인문학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과학의 복합체죠. 확실한 것은 없으며,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다변화돼 있어야 하고, 여러 무기가 준비돼 있어야 하죠. 관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확신'**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돼야지, 이것이 **'고집'**으로 변질되는 것은 늘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자신의 투자 논리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떤 섹터에 몰려 있거나, 혹은 너무 큰 수익 중이라면 꼭 생각해보세요. 확신인지 고집인지.

다시 시장 관점으로 돌아와서.. 현재 주식 시장 랠리는 구조적 추세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봅니다. 이걸 자주 하는 이유는.... 고가라고 못 사면.. 수익 기회를 놓치고, 저점에서 못 사면, 더 큰 수익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사는 게 맞다는 거겠죠?)

그래서 관점을 한번 더 달리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주가에서 고점은 과정입니다(더 큰 고점을 만들기 위한)' 그런데 '주식에서 저점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의 저점은 단기 현상이고, 고점은 며칠, 몇 주, 몇 개월 동안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지 주가가 높다고 '리스크 오프'를 하는 것은 '정말 확실한 오프의 근거'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엇박자에 오히려 수익률을 까먹죠..

더 시장 관점으로 들어오면.. 시장은 현재 무역전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의 관세 유예 소식에 주가는 반등하죠?
2. S&P500은 145% 관세에도 성장과 이익 타격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의 '블러핑'으로 판단합니다.
3.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도 주말 새 철회됩니다.
4. 시장은 실제 관세는 대략 10~20% 이하 정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느냐?

1.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집니다(물건 값 오르잖아요, 월마트 등)
2.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올라감, 디플레이션이 아님)이 발생하고 있고..
3.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4. 법인세 감면 -> 소비의 분화(고소득자 혜택성)

자, 여기에 채권 시장은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1. 미국 30년 만기 국채 5.15%까지 상승
2. 일본 30년물도 3.2%까지 상승(이미 금리 상승 반영)
3. 베센트 장관 개입 전에 국채 시장 멸망 직전까지 상황
4. 재정 악화, 채권 자경단 등 USD 자산에 대한 리스크프리미엄 요구 확대(수익률 더 올라..)

결론적으로 랠리 중이지만, 이 이면에 숨어 있는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nomad:

위클리 시간에 할만한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내일 쓸 거 없으면 어뜨카지.. πππ

여튼 중요한 이야기라서 길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되게 착각하는게.. 주식을 고르는 것마다 탁탁 잘 맞아서 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한번도 제가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는 '살아남는 걸' 정말 잘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손절한 후에 다시 올라가면 또 사서, 또 속을 지언정 늘 감당할만큼 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합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듭니다. 서로 살겠다고 상대방을 잡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나만 살겠다고 상대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물에 빠지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어야 합니다. 혹은 빠질때를 대비해서 구명조끼를 준비하는 겁니다. 살 준비를 안 하고, 다이빙하지 말고요.

< TODAY ISSUE >

'Today Issue'는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Issue' 코너만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원전 #신재생 #바이오 #개별주

#원전

"전력이 승패 좌우" 원전 뛰어드는 빅테크

AI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전은 기존 재생에너지 대비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크 기업들의 핵에너지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원전 부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빅테크들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이로스파워와 협력하고 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SMR 개발 스타트업 오클로와 협업했다.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솔트포스는 선박 형태의 부유식 원전에 SMR을 탑재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 피터 틸 팰런티어테크놀로지 회장, 데이비드 헬가슨 유니티 공동창업자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솔트포스에 투자한 게이츠는 직접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기도 했다. 테라파워는 345MW급 소동 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테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와이오밍주에 첫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14.7%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인 945테라와트시(TWh·1TWh는 한국 약 28만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592TWh)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 **관련주: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한전산업, 비에이치아이, 우진, 우리기술, 일진파워, 수산인더스트리, 슈어소프트테크, 금양그린파워, 오르비텍, 우양에이치씨, 한텍, 태웅**

#블랙록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블랙록, 재생·청정에너지 관련주 반등 기대..."美 핵심 전력공급원 될듯"

블랙록은 27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AI(인공지능)의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블랙록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30년까지 50~200%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6년까지 미국 발전 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024년 처음으로 석탄을 제치고 미국 에너지 믹스에서 우위를 점했다. 블랙록은 또 "청정에너지 섹터를 압박했던 금리 상승과 관세 등의 악재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블랙록은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주식은 강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건설 속도가 빠르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록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관련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SDN, 대명에너지, 에스에너지, 유니테스트, 신성이엔지, 국영지앤엠, 대성파인텍, OCI, 도화엔지니어링**
- **풍력 관련주: 씨에스윈드, 씨에스베어링, 동국S&C, 스펜코, 유니슨, SK오션플랜트, 세진중공업, 우림피티에스, 포메탈, 서암기계공업, 삼일씨엔에스, 대창솔루션, 삼영애크, 케이피에프, LS마린솔루션, SK이터닉스, 지엔씨에너지**

#생분해 플라스틱 #이재명

[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 이재명과 맞손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대상과 사용처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EL724 등 환경표지와 퇴비화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물품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민간 인증 연계로 수요를 창출, 국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시간외: **삼릉물산 (+9.98%)(4) / 세림B&G (+9.98%)(0.8) / 에코플라스틱 (+5.12%)(11)**
- 관련주: 세림B&G, 삼릉물산, 씨티케이, 한국팩키지, 무림SP, 무림P&P, 무림페이퍼, 한창제지

#삼성전기 #유리기판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유리기판 시제품 곧 생산...연내 2~3개사 공급 타진"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는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의 가동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연내 미국의 주요 빅테크 고객사 2~3곳에 샘플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을 구축,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자체적 유리기판(글라스 인터포저) 공급망을 구축 중인 삼성전자와도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제품 공급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코어 글라스, 글라스 인터포저는 기술적으로 80~90% 유사한 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각사의 역할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기의 고객사"라고 설명했다.

- 관련주: 켄트로닉스, 램테크놀러지, 와이씨켄, 필옵틱스, HB테크놀러지, 제이앤티씨, 케이엔제이, 미래컴퍼니, 씨앤지하이테크, 에프엔에스테크, 레이저셀, 한빛레이저, 야스, 기가비스, 아이씨디, 탑엔지니어링, AP시스템, 태성, 인텍플러스, 아바코, 나인테크

#엔비디아 #실적발표

엔비디아 실적 예상 상회, 시간외서 3% 급등(상보).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 시간외거래에서 3% 정도 급등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시간외거래에서 엔비디아는 2.94% 급등한 138.7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정규장은 0.51% 하락 마감했었다. 장 마감 직후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매출이 440억6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433억1000만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Signal Digest>

[경제 일반]

코스피, 2,670대로 올라 연고점 경신...코스닥 강보합(종합).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2천300억원, 6조5천14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원/달러 환율 7.0원 오른 1,376.5원 마감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2.314%

돌아온 외국인...반도체·원전株 집중 매수

이달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은 반도체와 원전 관련주에 집중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로, 1조 452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005930)를 1조 263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순매도한 것과 대비된다.

조선株 순항에...HD현대그룹 시가총액 100조원 육박

이재명, 소액주주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사항 필요"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를 주제로 진행된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예외없이 소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약간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서 세밀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법수단으로 회사의 돈, 즉 주주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백기사에게 파는 등 처분 지배권이 있는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도 포함해) 가능하면 빨리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예외사항'을 언급하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기준금리 25bp 인하 예상"...환율 1376원 마감

[국제-미중패권전쟁]

미국방 "美, 중국과의 충돌 추구 안해...동맹과 함께 억지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을 포함해 누구와도 충돌을 추구하지 않지만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의 야심이 커졌다"고 진단한 뒤 "이 정부(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등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힘을 통해 평화와 억지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유럽에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하나...업체 불려 정책 설명

중국 정부가 최근 유럽 반도체 공급망 업체들을 불러 모아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설명한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유럽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가 나왔다. 관영 중국일보는 전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가 다뤄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에 중국 판매 중지 명령"-FT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전자 설계 자동화(EDA) 기업에 중국에 대한 기술 공급 중지를 명령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칩 설계사와 제조사가 차세대 칩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서한을 받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멘스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트럼프 반도체 디자인 대중 수출 금지, 관련주 10% 폭락(상보).

[국제-미국]

Stock market today: Live updates

다우지수는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00포인트 이상 하락 마감: 실시간 업데이트
수요일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투자자들이 최신 실적 보고서와 연방준비제도(Fed) 회의록을 분석하는 가운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6% 하락한 5,888.55로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51% 하락한 19,100.94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44.95포인트(0.58%) 하락한 42,098.70으로 마감했습니다.

U.S. Treasury yields: investors monitor U.S.-EU trade talks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5%를 넘어섰습니다.

美 학자금 대출 연체율 0.8 → 8.0%...경제 발목 잡나

"비자 신청 당분간 안 받습니다"...주한 美대사관 통보에 유학생들 '날벼락'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국무부가 유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활동을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 외교 전문을 입수해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 공부하려는 유학생을 상대로 한 비자 심사에 '사상 검증'을 추가하면서, 외국인의 미국 교육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제-유럽]

러 외무 "러·우크라 차기 협상 곧 발표"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회 안보문제 담당 국제고위대표 회의에서 "우리는 16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내 차별적 법률 폐지를 주장했고, 곧 발표할 다음 직접 협상에서도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회담 후 2차 협상도 이스탄불에서 열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관련주: 대동기어, 대동, SG, 에스와이, 코오롱글로벌, 전진건설로봇, 현대에버다임, 대모, 디와이디, 비에이치아이, 자연과환경, 범양건영, 스펜코, 인디에프, 수산중공업, 서연탐메탈, 대창단조, 동일고무벨트, HD현대건설기계, 신스틸, 한미글로벌, TYM**

젤렌스키, 푸틴·트럼프와 3자회담 요구(종합)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푸틴이 양자회담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모두가 3자 회담을 원한다면, 나는 상관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 "러·우크라 차기 협상 곧 발표...각서 마무리 단계"(종합)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회 안보문제 담당 국제고위대표 회의에서 "우리는 16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내 차별적 법률 폐지를 주장했고, 곧 발표할 다음 직접 협상에서도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회담 후 2차 협상도 이스탄불에서 열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러 원유·우라늄 구입 땀 500% 관세"...제재카드 꺼낸 美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원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러시아 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준비 중이다.

[국제-중국]

[중국증시-마감] 기업 실적 부진에 소폭 하락

中, IT 제조업 고도화 계획 발표...美 제재 맞서 자립화 초점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20쪽 분량의 방안은 일정 규모 이상 IT 제조업체의 핵심 공정 컴퓨터 제어화 비율이 2027년까지 85%를 넘어야 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중국은 또 이를 위해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를 100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방안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로봇틱스,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등 중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中, 중동 4개국도 무비자...유럽·동아시아·중남미 이어 확대

[국제-그외]

[도쿄증시-마감] 40년물 입찰 부진에 상승폭 반납 후 보합

일본은행 2024년도 국채 평가손 273조원...역대 최대

일본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도 결산에 따르면 올해 3월말 보유한 국채 잔고(취득가 기준)는 575조9천308억엔(약 5천759조원)이었다.그러나 시가 기준 보유 국채 규모는 547조3천62억엔으로 무려 28조6천246억엔(약 273조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채권 가격은 금리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일본은행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보유 국채의 평가 손실이 커지고 있다.다만 일본은행은 일반적으로 만기 때까지 국채를 보유해 시가 반영을 할 필요는 없는 만큼 평가손실로 인한 부정적 재무 영향이 당장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

日, 美와 관세협상서 "반도체 최대 10조원어치 구매" 제시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 관계자는 28일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미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제품을 염두에 두고 최대 1조엔(약 9조 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수입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원자재]

Oil inches rises on supply risks, offset by expected OPEC+ output increase

공급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OPEC+ 생산량 증가로 상쇄될 전망

Gold firms as investors buy the dip ahead of Fed's meeting minutes

연준의 회의록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하락을 매수하는 금 회사들

금은 수요일 투자자들이 이전 세션에서 가격이 하락한 후 하락분을 매수하고 시장이 미국 금리 전망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연방 준비 은행의 최근 정책 회의록과 경제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 내달 알래스카 '에너지 콘퍼런스' 참석...실·국장급 참석 고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3~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8일) "앵커리지주 측 초청에 따라 이번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장·차관이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실·국장급에서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전·재생에너지 등 최신 에너지 기술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약 1천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관련주: 한텍, 넥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한선엔지니어링, 디케이락, 성광벤드, 태광, 비엠티,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우림피티에스, 오리엔탈정공, 일승, SK오션플랜트**

[CO2 / 신재생]

한수원 원전 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 가능성 제기..."무산 가능성 낮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체코 공영 라디오주르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현 정부 임기 종료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알라 총리는 "정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원전 계약이 미뤄지는 상황으로 인해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체코가 현재 전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체코 내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황"이며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 간이 아닌 국가 간 사업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서명을 통해 업적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코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전력이 승패 좌우" 원전 뛰어드는 빅테크

AI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전은 기존 재생에너지 대비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크 기업들의 핵에너지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원전 부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빅테크들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이로스파워와 협력하고 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SMR 개발 스타트업 오클로와 협업했다.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솔트포스는 선박 형태의 부유식 원전에 SMR을 탑재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 피터 틸 팰런티어테크놀로지 회장, 데이비드 헬가슨 유니티 공동창업자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솔트포스에 투자한 게이츠는 직접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기도 했다. 테라파워는 345MW급 소용 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테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와이오밍주에 첫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14.7%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인 945테라와트시(TWh·1TWh는 한국 약 28만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592TWh)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 **관련주: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한전산업, 비에이치아이, 우진, 우리기술, 일진파워, 수산인더스트리, 슈어소프트테크, 금양그린파워, 오르비텍, 우양에이치씨, 한텍, 태웅**

블랙록, 재생·청정에너지 관련주 반등 기대..."美 핵심 전력공급원 될듯"

블랙록은 27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AI(인공지능)의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블랙록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30년까지 50~200%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6년까지 미국 발전 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024년 처음으로 석탄을 제치고 미국 에너지 믹스에서 우위를 점했다. 블랙록은 또 "청정에너지 섹터를 압박했던 금리 상승과 관세 등의 악재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블랙록은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주식은 강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건설 속도가 빠르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록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관련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SDN, 대명에너지, 에스에너지, 유니테스트, 신성이엔지, 국영지앤엠, 대성파인텍, OCI, 도화엔지니어링
- 풍력 관련주: 씨에스윈드, 씨에스베어링, 동국S&C, 스펜코, 유니슨, SK오션플랜트, 세진중공업, 우림피티에스, 포메탈, 서암기계공업, 삼일씨엔에스, 대창솔루션, 삼영애펙, 케이피에프, LS마린솔루션, SK이터닉스, 지엔씨에너지

[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 이재명과 맞손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대상과 사용처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EL724 등 환경표지와 퇴비화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물품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민간 인증 연계로 수요를 창출, 국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시간외: **삼릉물산 (+9.98%)(4) / 세림B&G (+9.98%)(0.8) / 에코플라스틱 (+5.12%)(11)**
- 관련주: 세림B&G, 삼릉물산, 씨티케이, 한국팩키지, 무림SP, 무림P&P, 무림페이퍼, 한창제지

EU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5%에 거의 근접"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27개국이 제출한 '국가 에너지·기후계획'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30년이 되면 1990년 대비 순배출량이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3년 예측치였던 51%와 비교하면 향상된 수치다.

[미래차]

테슬라-구글, 텍사스서 로봇택시 맞붙는다

테슬라는 다음 달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웨이모는 미국 전역에서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다.

거버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테슬라와 웨이모의 서로 다른 자율주행 접근 방식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다. 오스틴 출시를 계기로 로봇택시 분야에서 첫 맞대결이 펼쳐지며, 비즈니스와 경제성이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전용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중앙집중식 접근법을 채택한 반면,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이 탑재된 기존 모델Y 차량을 활용한 분산형 차량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 머스크, 테슬라 로봇택시 내달 출시...초반엔 운행 범위 제한(2025.05.21)
- 관련주: 퓨런티어,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라이콤, 에스오에스랩, 모트렉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슈어소프트테크, 이지트로닉스, 포니링크, 시지트로닉스

"배터리 산업, 中 저가공세에 위기... 한국판 IRA 서둘러야"

'현대차·LG화학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배터리 실증단계 진입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팩토리얼 에너지(Factorial Energy, 이하 팩토리얼)'와 스텔란티스가 전고체 배터리의 차량용 성능 검증을 실시했다.

LG엔솔이 키운 나트륨, '美 최초' 리튬 이온 배터리 플래그십 분리막 공급

현대차 노조 "주4.5일제, 정년연장 해달라"

[조선 / 해운]

日정부 '조선업 부활' 주요 정책과제에 넣을 듯

삼성중공업, '에너지 공룡' 골라LNG와 FLNG 건조 계약 눈앞

[삼성전자 / 반도체]

NVIDIA Expected to Launch RTX PRO 6000 Special Edition for China's AI Market, Potentially Boosting Future GDDR7 Demand, Says TrendForce

TrendForce에 따르면 NVIDIA는 중국 AI 시장을 위한 RTX PRO 6000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여 향후 GDDR7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렌드포스(TrendForce)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발표된 새로운 미국 수출 제한에 따라 엔비디아의 H20 또는 이와 동등한 메모리 대역폭 또는 인터커넥트 성능을 가진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위해 RTX PRO 6000(구 B40)의 특별 저전력, 다운스케일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델은 원래 계획된 HBM 메모리에서 GDDR7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스퀘어, 美 반도체 소재 스타트업에 베팅...하이닉스와 시너지 기대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유리기판 시제품 곧 생산...연내 2~3개사 공급 타진"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는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의 가동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연내 미국의 주요 빅테크 고객사 2~3곳에 샘플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을 구축,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체적 유리기판(글라스 인터포저) 공급망을 구축 중인 삼성전자와도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제품 공급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코어 글라스, 글라스 인터포저는 기술적으로 80~90% 유사한 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각사의 역할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기의 고객사"라고 설명했다.

- **관련주: 캠티로닉스, 램테크놀러지, 와이씨켄, 필옵틱스, HB테크놀러지, 제이앤티씨, 케이엔제이, 미래컴퍼니, 씨앤지하이테크, 에프엔에스테크, 레이저쎄, 한빛레이저, 야스, 기가비스, 아이씨디, 탑엔지니어링, AP시스템, 태성, 인텍플러스, 아바코, 나인테크**

이종우 "HBM 세정 장비, 10년 전부터 개발 착수...준비된 기업만 성장"

제우스, "우리가 만든 HBM 세정 장비 아톰과 새턴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쓰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시장이 성장한 건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HBM 시장이 너무 빠르게 커지면서 글로벌 메이커들도 뛰어들고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듯합니다."

"기존 실리콘 기판을 대체하는 유리기판과 특정 압력과 온도를 활용해 식각 공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온·고식각률 식각장비(PEP) 등을 개발 중입니다. 업계에선 두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2022년과 2024년에 회사 매출은 비슷해도 세부 구성이 다를 정도로 시장 변화가 빠릅니다. 당장은 이 시장이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에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I/ 로봇]

문제적 거물의 '맞손'...머스크 챗봇 '그록', 텔레그램에 탑재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최고경영자)는 28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텔레그램과 xAI는 10억명이 넘는 텔레그램 사용자에게 그록(Grok)을 배포하고 앱에 통합하기 위한 1년 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록은 머스크가 이끄는 AI(인공지능) 기업 xAI의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다. 이번 협력으로 텔레그램은 xAI로부터 총 3억달러(약 4128억원)의 현금과 지분을 받게 되며,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그록 구독료 수익의 50%를 받는다고 밝혔다.

- **관련주: 폴라리스오피스, 차이커뮤니케이션, 와이즈버즈,LS ELECTRIC**

[가상 자산 / 가상 현실]

[마켓인]미 국채 토큰 10조원 근접...엔비디아·테슬라 주식 토큰도 나온다

미국 주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미 국채·주식의 '토큰화'가 전통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블랙록과 시큐리타이즈가 공동 발행한 미 국채 토큰 'BUIDL(비들)'은 시장 점유율 40%를 넘기며 급성장 중이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도 토큰화 주식 플랫폼 '엑스스톡(xStocks)' 출시에 나서며 시장 확장에 나섰다.

대선주자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전문가들 "실효성은 글썄"

"클레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장현국의 약속은 넥서스로 이어졌다

[IP/엔터]

넷마블, 퓨처 게임쇼도 간다...'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트레일러 공개

[BIO / 의료AI]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 유럽 점유율 4년 만에 5배

나이백,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물질 'NP-201' L/O...'6천억원 규모'

나이백은 미국 소재 제약바이오 기업과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후보물질(개발코드명 NP-201)에 대한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이전하는 기술수출(L/O)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기술수출 계약의 총 규모는 4억3500만달러(약 5953억원)이며, 이중 계약금은 800만달러(약 109억원),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은 4억2700만달러(약 5843억원)다.

나이백은 NP-201의 상업화 성공 이후 누적 판매 마일스톤 달성 시 이후 60일 이내에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상업화 로열티(경상 기술료)는 NP-201로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4%로 설정됐다.

- 시간외: **나이백 (NXT)(+25.79%)(424)**

'치명률 최대 75%'...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된다

[정치]

[여론조사] 대선 D-6...이재명 48% 김문수 34% 이준석 10%

이준석, 이재명과 양자대결 격차 5%P...李-金은 6%P 差

민주 "AI 정책수석 신설"...국힘 "4대 성장산업쫓 강화"

사전투표 D-1...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사실상 무산(종합).

6·3 대선 유권자 87% "반드시 투표할 것"...3년전 대선과 비슷

이준석, '여성신체 폭력' 표현에 "사과"... "정당한 질문" 주장도(종합2보)

[M&A / 주요 공시]

[단독] 방시혁, 투자자에 "상장 안해"... 측근 PEF에 지분 팔도록 유도

금감원 조사2국은 하이브 기업공개(IPO)가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EF에 매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검찰 수사로 방 의장과 PEF 간 거래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면 당사자들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똑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금감원 조사와는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링크솔루션, 청약 경쟁률 1천999대 1... 증거금 2조6천억 몰려

한기평, 형지글로벌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 전일 시장 주도 종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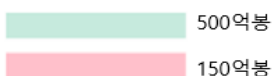
'전일 시장 주도 종목'은 거래일 기준 전(前)일 일어난 주요 종목과 그에 따른 이벤트를 다룬 콘텐츠입니다.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이벤트는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이벤트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해당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아는 것은 주식의 시작입니다.

해당 종목을 오르게 한 이슈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종목이 상폐되기 전날까지도 종목을 오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차트가 좋을 때, 해당 종목의 이슈가 살아 있는 경우 **80%** 이상의 확률로 다시 시세를 주게 됩니다.



종목명	현재가	대비	...	L...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	메모
< 이차전지 >								
LG에너지솔루션	289,000	▲ 6,500	6.0	↓	395,192	112,173	676,260	EV·ESS 등 다양한 분야 전지 제품 개발·판매하며 EV 배터리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음
SK이노베이션	86,800	▲ 4,800	5.8	↓	440,917	37,853	131,098	SK그룹 계열 종합에너지기업으로, 21년 10월 배터리사업 분할해 SK온 설립
에코프로	40,900	▲ 2,550	6.6	↓	1,423,135	57,392	55,532	양극활물질 등 2차전지 사업을 분할하여 에코프로비엠을 신규 설립한 뒤 종속회사로 보유
에코프로비엠	88,800	▲ 7,600	9.3	↓	759,138	65,198	86,848	에코프로의 2차전지소재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업체
에코프로머티	45,550	▲ 4,500	10.9	↓	1,323,416	58,747	31,854	하이니켈 전구체 제조·판매하며 NCM 기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
새빛캠	15,750	▲ 1,570	11.0	↓	90,783	1,426	887	L6화합이 페배터리와 스크랩을 전달하면 이를 전구체 복합액으로 만들어 한국전구체에 납품
롯데에너지	22,100	▲ 2,200	11.0	↓	221,650	4,738	11,573	이차전지 음극집전체인 일렉포일 제조·판매업체로 전기차·ESS·PCB 등에 활용
나노신소재	48,800	▲ 4,400	9.9	↓	116,169	5,477	5,953	수계 기반의 음극재용 CNT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솔루스첨단	7,910	▲ 630	8.6	↓	341,918	2,674	5,554	전기차용 고효율 전지박 개발 완료, 헝가리 공장 통해 생산능력 확장
코스모신소	32,250	▲ 2,550	8.5	↓	439,522	13,815	10,485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생산 업체
에코앤드림	22,650	▲ 1,600	7.6	↓	142,421	3,180	4,029	NCM계 양극 전구체 등 2차전지 소재 제조업체로 맞춤형 제품 생산 및 기술 투자 진행
삼성SDI	174,100	▲ 3,900	8.6	↓	1,002,912	170,709	119,719	통합 각형 배터리 도입해 원가절감 추진 중이며 생산라인 미원화 전망
미수스페셜	42,350	▲ 2,400	6.0	↓	436,723	18,127	12,793	KETI 주관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개발 참여, 전고체 핵심원료 황화리튬 생산
메가타치	4,180	▲ 505	13.7	↓	12,196,507	51,473	868	2차전지·반도체 공정용 핀 제조업체로 배터리 활성화·반도체 테스트 공정용 부품 생산
상신디피	7,740	▲ 700	9.9	↓	165,467	1,249	1,032	2차전지 부품사, CAN·CAP ASS'Y 생산, 삼성SDI PHEV·EV 배터리 CAN 개발
엘앤에프	56,100	▲ 8,100	16.8	↓	1,006,818	53,915	20,373	LFP 양산 본격화 위해 5만톤 규모 투자 추진 중이며 유동성 문제 없음 밝혀
엔켄	64,200	▲ 5,100	8.6	↓	387,026	24,109	13,607	2차전지·EDLC용 전해액 및 첨가제 제조업체로 XEV·ESS 동용 전해액 생산 중심
대주전소재	76,800	▲ 6,600	9.4	↓	232,810	17,349	11,889	2차전지 효율 높이는 SiOx계 음극활물질 개발해 양산
포스코퓨처	114,100	▲ 4,000	13.9	↓	887,327	97,299	88,386	고에너지·저원가 친환경 LMR 배터리 양극재 개발 완료
대보마그네	18,120	▲ 4,180	29.9	↓	4,545,344	76,552	1,424	리튬·나트륨이온배터리용 EMF 공급하며 기술 적용 확대 중
매경케미칼	11,470	▲ 2,360	25.9	↓	12,228,344	132,759	5,580	국내 유일 나트륨이온배터리 음극재용 하드카본 제조사
디블유씨피	7,790	▲ 710	10.0	↓	1,946,891	14,982	2,636	나트륨이온 배터리용 수계 세라믹 분리막 개발 과제 수행 중
자이글	4,735	▲ 1,090	29.9	↓	2,341,260	10,891	641	LFP·나트륨이온 배터리 진출하며 자회사 통해 나트륨이온 배터리 개발 중
탑메타리얼	27,200	▲ 2,850	11.7	↓	164,006	4,500	2,215	ESS 시장 우선 공략 후 전기차 진출 예정이며 LFP 양극재 생산 준비 중
티에스아이	5,150	▲ 200	4.0	↓	743,689	3,892	1,041	LFP 전용 먹심 시스템 개발 보유하며 관련 장비·소재 사업 확대 중
< 퓨리오사시 >								
비큐AI	1,623	▲ 310	23.6	↓	46,448,278	75,530	510	퓨리오사시, MDS테크·비큐AI 참여한 JPM-코난 펀드와 투자계약 체결, RCPS 발행
MDS테크	1,393	▲ 224	19.1	↓	98,423,749	134,875	1,293	퓨리오사시, MDS테크·비큐AI 참여한 JPM-코난 펀드와 투자계약 체결, RCPS 발행
포바이포	19,110	▲ 2,180	12.8	↓	9,929,200	189,559	2,124	퓨리오사시와 협력해 픽셀 탑재 NPU 패키지로 미국 콘텐츠 시장 공략
DSC인베스	6,090	▲ 460	8.1	↓	10,492,727	67,352	1,644	초기 투자자로 퓨리오사시 지분 보유
나우IB	1,394	▲ 92	7.0	↓	14,470,219	20,654	1,323	투자 포트폴리오로 퓨리오사시에 투자
< BIO >								
온코크로스	13,880	▲ 2,080	17.6	↓	10,427,820	142,844	1,651	ASCO 2025서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용 비침습 바이오마커 연구 결과 발표 예정
셀리드	8,790	▲ 440	5.2	↓	26,261,115	237,916	1,855	LP.8.1 기반 코로나 백신 개발 및 생산 중이며 신속 허가도 추진 중
HL베라퓨	8,470	▲ 780	10.1	↓	1,043,426	8,893	7,146	NK 치료제 RGN-259 유럽 임상3상 톱라인 결과 다음 달 발표 예정
HLB	53,900	▲ 1,200	2.2	↓	584,514	31,650	70,838	HL베라퓨텍스 대주주
인투셀	46,700	▲ 1,200	2.6	↓	2,735,083	123,694	6,925	ADC 플랫폼 기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연구 진행 중
< 개별주 >								
코오롱	29,250	▲ 3,850	15.1	↓	2,143,441	65,605	3,693	코오롱그룹 순수 지주회사로 주요 상장사 자회사 다수 보유
HD현대	97,700	▲ 0,800	12.4	↓	1,164,124	112,966	77,176	한국조선해양사 인적 분할된 현대중공업그룹 순수지주회사로 조선·정유 등 자회사 보유
SK	156,200	▲ 6,100	11.4	↓	714,889	108,724	113,249	SK그룹 사업지주회사로 에너지·통신·바이오 등 주요 계열사 다수 보유
SK스케머	108,200	▲ 7,700	7.6	↓	531,474	57,624	143,409	SK텔레콤서 인적분할된 지주회사로 11번가·티맵·SK하이닉스 등 자회사 보유
한화	67,500	▲ 5,700	9.2	↓	2,432,876	164,228	50,597	방산 전문 한화그룹 실질 지주사로 계열사 다수 보유한 투자·관리 중심 회사
빛과전자	1,254	▲ 289	29.9	↓	21,704,467	26,297	578	저전력·소형 C-band Tunable SFP 상용화로 기술혁신부문 우수상 수상
아이티센	1,027	▲ 161	18.5	↓	4,108,969	4,062	669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LG CNS와 IT시스템 구축 계획
아이티센글	11,250	▲ 30	0.2	↓	739,232	8,493	2,611	e급 연동 스테이بل코인 GPC 사업 진행 중...화폐연동 확장 기대
비트맥스	3,640	▲ 475	15.0	↓	4,458,872	15,939	1,355	500억 전환사채 발행해 가상자산 취득·운영자금 확보...비트코인 194개 보유
카카오페이	38,900	▲ 2,950	8.2	↓	1,376,243	52,754	52,396	썬페이·스마일페이 인수 위해 SSB닷컴과 협상 중
카카오	41,700	▲ 750	1.8	↓	2,787,745	115,864	184,194	오픈AI와 AGI 협력 가능성 열며 향후 제휴 확대 시 기업가치 상승 여력
실리콘투	44,850	▲ 3,100	7.4	↓	4,262,716	191,057	27,436	K푸드·K팝 강화 위해 한터차트 투자 및 M&A 검토...글로벌 시너지 전략 추진
파워넷	2,685	▲ 350	14.9	↓	14,177,615	38,892	587	삼성전자 등과 장기 거래 중이며 EMS·LFP 배터리 사업 확대해 수익성 개선 중
나우로보틱	30,400	▲ 2,450	8.7	↓	8,333,430	263,674	3,815	배터리 납품 통해 동남아 공급 확대하며 AI 기반 차세대 로봇 개발 집중
아이씨케이	19,040	▲ 970	5.3	↓	3,276,677	62,698	2,555	캐나다 BTQ와 콜드웰렛 보안 솔루션 공동 개발 위한 MOU 체결
한국정보인	5,670	▲ 380	7.1	↓	9,887,247	57,443	2,406	원화 스테이بل코인 실증 중인 페어스캐머럽 지분 20.05% 보유

< 이차전지 >

●LG에너지솔루션 (+6.06%)(1121) / SK이노베이션 (+5.85%)(378) / 에코프로 (+6.65%)(573), 에코프로비엠 (+9.36%)(587), 에코프로머티 (+10.96%)(587) / 새빛캠 (+11.07%)(14)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11.06%)(47) / 나노신소재 (+9.91%)(54) / 솔루스첨단소재 (+8.65%)(26) / 코스모신소재 (+8.59%)(138) / 에코앤드림 (+7.60%)(31)

[특징주] '머스크 사업 집중' 테슬라 7% 급등에 이차전지株 동반 강세

(25.05.27)[단독] K배터리, 북미 최초로...전기차 'LFP 라인' 깐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GM은 2027년 완공 예정인 미국 인디애나 합작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 도입을 협의 중이다. 이 공장은 당초 니켈이 80% 이상 들어간 삼원계 배터리만 생산하도록 설계됐지만 LFP 배터리도 병행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소재 조달과 장비 도입 계획을 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GM과 합작한 테네시주 공장의 일부를 LFP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삼성SDI (+8.68%)(1707)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6.01%)(181) / 메가터치 (+13.74%)(511) / 상신 이디피 (+9.94%)(12)**

투자 늘리는 삼성SDI·포스코퓨처엠... 공장 짓고 탈중국 가속

(25.05.27)삼성SDI 배터리 설계 확 바꾼다... 中선두 시장에 도전장

삼성SDI가 각형 배터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설계를 확 바꾼다. 중국 기업과 같은 방식의 '톱탭(top-tab)' 구조를 적용한다.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삼성SDI 배터리 생산 라인이 프리미엄과 보급형에 맞춰 이원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내달 구형 라인 철거 작업을 시작하는 헝가리 공장의 경우 고객사 주문에 맞춰 태킹(Stacking) 방식으로 만든 사이드탭 배터리 신규 투자가 결정된 상태다. 가격이 우선시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은 점진적으로 톱탭 각형 배터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엘앤에프 (+16.88%)(539) / 엔켐 (+8.63%)(241) / 대주전자재료 (+9.40%)(173)**

'유동성 경고등' 엘앤에프, LFP 투자금 마련 '촉각'

회사는 최근 LFP 양산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고객사와 연산 5만톤(t)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LFP 사업 투자 규모는 3000억원이다. 합작사 방식으로 지분율에 따라 최종 투자 규모가 결정된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CB 상환의 경우 보유 현금 3000억원으로 대응할 수 있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며 "LFP 투자는 지분율에 따라 투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고 CB, BW를 비롯해 부채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사 주문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출하량이 늘면서 2분기 이후 매출이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퓨처엠 (+13.99%)(972)**

'1.1조 유상증자' 포스코퓨처엠, 전체 임원 자사주 매입

(25.05.27)포스코퓨처엠, LMR 양극재 개발 마무리

포스코퓨처엠이 미래 배터리 기술로 각광받는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의 양극재 개발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LMR 배터리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3%가량 높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만큼 같은 용량으로 더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니켈·코발트와 같은 고가 금속 사용을 줄이고 망간 비중을 높여 가격을 낮췄다. 또 LFP 배터리가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튬 회수율이 높은 LMR 배터리는 경제성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친환경 배터리로 주목받는다.

●**대보마그네틱 (+29.99%)(765) / 애경케미칼 (+25.91%)(1327) / 더블유씨피 (+10.03%)(149)**

[특징주] 대보마그네틱 급등, "머스크 기업 경영 집중" 소식에 테슬라 간밤 7% 가까이 강세

(25.04.24)나트륨 배터리 시대 기다린다...애경케미칼의 미래 먹거리 '하드카본'

(25.05.02)대보마그네틱, CATL 나트륨이온배터리상용화 세계최초 습식EMF개발성공 CATL 공급사부각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이달 21일 혁신적인 전기차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했다. CATL의 낙스트라 배터리는 나트륨 이온배터리의 대량 생산을 세계 최초로 실현하며 리튬 자원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대보마그네틱의 전자석 탈철기(EMF)는 리튬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나트륨 이온배터리에서도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보마그네틱은 CATL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에 EMF를 공급하며 나트륨 이온배터리 상용화 흐름에 맞춰 기술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이글 (+29.90%)(108) / 메가터치 (+13.74%)(511) / 탑머티리얼 (+11.70%)(45)**

(25.05.27)[단독] K배터리, 북미 최초로...전기차 'LFP 라인' 깬다

(25.04.25)[특징주] 자이글 상한가, '中 나트륨이온 배터리 양산'에 나트륨이온 기술력 '관심집중'

자이글은 웰빙가전 전문기업이지만, 2022년 CM파트너의 2차전지 사업부를 인수하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및 나트륨이온 배터리 분야에 진출했다. 자회사 '자이에너지솔루션'을 통해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어 관련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25.04.23)탑머티리얼, LFP 양극재 4분기 생산 목표...신기술 특허로 경쟁력 확보

탑머티리얼은 LFP 사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이후 전기차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고성능 LFP 양극재 개발을 완료했으며, 4분기

부터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티에스아이 (+4.04%)(38)

티에스아이, 북미최초 K-배터리 LFP라인 수혜...LFP 믹싱장비 핵심 공급사 부각↑ [특징주]

티에스아이는 이차전지 전극공정에 사용되는 LFP 전용 순환 믹싱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으며, 탄소나노튜브(CNT) 기반 도전재 등 LFP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 장비와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 퓨리오사AI >

●비큐AI (+23.61%)(747) / MDS테크 (+19.16%)(1339)

퓨리오사AI, JW-코난 AI 넥스트리더 펀드 투자 계약...MDS테크·비큐AI 참여

퓨리오사AI는 제이더블유자산운용, 코난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영하는 'JW-코난 AI 넥스트리더 펀드'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비공개다. 이번 투자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MDS테크, 비큐AI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다. 비큐AI는 1998년 설립 이후 국내 최대 뉴스 데이터 공급 기업으로 성장했다. 뉴스와 AI 기술의 융합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포바이포 (+12.88%)(1885) / DSC인베스트먼트 (+8.17%)(671) / 나우IB (+7.07%)(205)

퓨리오사AI, 7월 국내 대기업에 AI 반도체 공급...LG 유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에만 모든 운명을 맡기겠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며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에서 벗어나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선 퓨리오사AI가 오는 7월 국내 대기업에 자사 AI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공급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백 대표는 해당 고객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LG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그룹의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LG AI 연구원은 앞서 레니게이드 샘플을 자체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해왔다. 최근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레니게이드의 공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 BIO >

●온코크로스 (+17.63%)(1360)

온코크로스, ASCO서 'AI 대사체 기반 조기 암 진단 기술' 첫 공개

온코크로스는 오는 5월 30일(현지시간)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5'에서 자궁경부 상피내 이형성증(CIN) 및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한 비침습적 대사체 기반 바이오마커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자궁경부암 진단은 침습적 절차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감이 크고, 특히 조기 암의 경우 진단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온코크로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액 내 대사체 정보를 AI로 분석하는 비침습 체외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혈액 샘플만으로 고위험 병변을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 조기 암 스크리닝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자궁경부암 및 CIN 환자를 포함한 총 316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연구로, 온코크로스의 대사체 기반 체외진단 기술이 자궁경부암과 CIN을 각각 민감도 94.5%, 95.9%, 특이도는 두 질환 모두 95.0% 수준의 결과를 기록하며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여줬다.

●셀리드 (+5.27%)(2345)

(25.05.27)셀리드, 신규 코로나19 변이 'LP8.1' 백신 생산 시작

셀리드가 LP8.1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백신 생산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백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LP8.1 백신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HLB테라퓨틱스 (+10.14%)(88), HLB (+2.28%)(316)

HLB그룹, 日 시니어 전문기업 ACA넥스트 지분 인수..."2대 주주"

HLB그룹, 핵심 파이프라인 성과 가시화...연말까지 R&D 이벤트 지속

다음 달에는 HLB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의 유럽 임상3상(SEER-3) 톱라인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해당 임상은 유럽 4개국 25개 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사용 편

의성과 짧은 투약 기간, 낮은 부작용 발생률로 경쟁 약물인 '옥서베이트' 대비 강점을 보유한 약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톱라인 데이터 성공적으로 도출될 경우 빅파마들과의 기술이전 협상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인투셀 (+2.64%)(1236)

(25.05.26)인투셀, 삼성이 선택한 세계 최초 ADC 플랫폼 '게임체인저'..."삼성에 마일스톤 받을 수 있다"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링커-약물 플랫폼 기술에 집중한 인투셀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손잡고 공동 연구에 나서고 있다. ADC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약물과의 연결(Cleavage Chemistry)'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인투셀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인투셀은 2023년 12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ADC 플랫폼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계약(RCA)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최대 5개 타겟에 대해 인투셀의 OHPAS 및 PMT 플랫폼 기술, 고유 약물기술 등을 적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타겟별 개발 옵션이 행사되면 사전에 정해진 Term Sheet에 따라 마일스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이번 계약의 핵심 기술은 인투셀이 자체 개발한 OHPAS 링커 플랫폼으로, 약물이 정상세포로 전달되는 비율을 낮춰 부작용을 줄이고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정밀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 개별주 >

●지주사 관련주: 코오롱 (+15.16%)(656) / HD현대 (+12.43%)(1129) / SK (+11.49%)(1087) / SK스퀘어 (+7.66%)(576) / 한화 (+9.22%)(1642)

[21대 대선] 증시 부양 한목소리...李 "상법 개정" vs 金 "자본시장법 개정"

[특징주] '지배구조 개선' 대선 공약에...두산·한화 등 지주사株 강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법상 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력이 높은 지주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빛과전자 (+29.95%)(262)

(25.05.27)빛과전자, 200억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빛과전자, 삼성전자 우수협력사 선정...기술혁신 부문 우수상

이번 기술혁신부문 우수상 수상은 빛과전자가 25Gb/s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C-band Tunable SFP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성과와 경쟁사 대비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수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저전력 구현과 소형 패키지 개발이다. 최근 글로벌 광통신 시장의 트렌드는 친환경·저전력 솔루션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에 맞춰 빛과전자는 국내외 경쟁사 대비 약 20% 낮은 소비전력을 구현하면서도 표준 SFP 크기의 소형 패키지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아이티센엔텍 (+18.59%)(40), 아이티센글로벌 (-0.27%)(84)

(25.05.21)아이티센엔텍, 클라우드 컴퓨팅 고성장에도 PER 4.4배...제4인뱅 모멘텀도

(25.05.26)아이티센엔텍, AI 선도기업들과 공공 특화 AI 솔루션 개발

(25.05.25)신장호 아이티센엔텍 대표, "금융 IT 시장 톱3 진입...수익성 배가"

아이티센엔텍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특정 컨소시엄에도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아이티센엔텍은 같이 참여 중인 LG CNS와 함께 IT시스템 구축을 맡을 예정이다. 금융권 공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신 대표는 "금융권 사업 수주와 전개를 위해 초기에는 하도급 또는 컨소시엄 파트너 형태로 시작할 것"이라며 "점차 주도 사업자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5년 이내에 금융 IT 시장 톱3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맥스 (+15.01%)(158)

비트맥스, 글로벌 BTC 투자 열풍 속 '한국판 스트래티지' 전략 가속

(25.05.26)비트맥스, 국내 1위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노린다...제2의 메타플래닛 '주목'

비트맥스는 지난 23일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및 운영자금 목적의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납입일은 6월 20일이다. 납입 대상자는 라르고스브릭2호 투자조합다.이번 투자금은 400억원이 연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취득에 사용된다. 100억원은 올해와 내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비트맥스는 지난 23일 비트코인 29.2256개를 44억6759만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94개로 늘어났다.

●카카오페이 (+8.21%)(527), 카카오 (+1.83%)(1158)

(25.05.27)카카오, 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 3종 오픈소스 공개

(25.05.27)'쓱페이' 인수 검토 보도에...카카오페이 52주 신고가[핫종목]

●실리콘투 (+7.43%)(1910)

(25.05.27)실리콘투 "K뷰티 플랫폼 첫 매출 1조 도전"

실리콘투는 K푸드와 K팝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회사가 최근 음원 순위 사이트 '한터차트'에 지분투자를 한 것도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K컬처 유행이 지속되려면 세계 유통망에 촘촘하게 들어가 다른 문화와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에서 K뷰티와 K팝을 연계한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수합병(M&A)도 고려하고 있다. 김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아이돌 굿즈 상품 등의 연매출은 각 100억원대지만 사업 확장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K푸드, K팝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파워넷 (+14.99%)(386)

[클릭 e종목]"파워넷, 종합 전력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본격화"

파워넷은 2001년 삼성전자 협력사로 등록된 이래, 삼성전자와 코웨이 등과 20년 이상 거래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 및 대형 생활용품 유통사로 신규 고객사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전기기 부문이 전체 매출의 84.4%를 차지하며, 삼성전자와 코웨이향 매출이 약 85%에 달한다.EMS 사업은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공기청정기 등 완제품 세트 생산까지 확대됐으며 베트남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전공정 라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단가가 높은 세트 제품 공급이 가능해지며 전체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배터리 사업에서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의 소형 팩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업체 등에 공급 중이며, 전기 오토바이용 교체형 배터리 팩, ESS용 대형 팩까지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나우로보틱스 (+8.77%)(2620)

(25.05.07)상장 승인 프리패스 원동력 '글로벌사 ODM 계약'

나우로보틱스는 글로벌 기업 'Z사'와 NDA를 체결하고 산업용 로봇 및 협동 로봇 납품을 목표로 ODM 제품을 단독으로 개발 중이다. 회사 측은 증권신고서에 "글로벌 기업 Z사는 산업 자동화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2024년 기준 인지도 및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시장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 중"이라고 기재했다.다만 중대형 다관절 로봇은 기술 난이도가 높아 Z사가 위치한 국가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Z사가 ODM 의뢰를 위해 국내 기업 문을 두드린 이유다. 국내에서 중대형 다관절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HD현대로보틱스와 나우로보틱스 정도가 꼽힌다. HD현대로보틱스에겐 해당 기업의 ODM 하청을 수행할 유인이 없다. 나우로보틱스가 유일한 선택지였던 셈이다.

(25.05.27)나우로보틱스, 삼성 로봇 공략 위해 동남아 진출...휴머노이드, AI 기반 산업용 로봇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나우로보틱스는 2025년까지 베트남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에 주재원 1명과 고객지원(C/S) 인력 1명을 총원해 영업력 및 A/S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및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동남아 현지 생산거점에 직접 공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향후 나우로보틱스는 기존 산업용 로봇 라인업을 넘어, 협동로봇, 양팔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AI 기반 산업용 로봇 등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AI와 결합된 로봇 SW 기술을 고도화하여, 스마트 제조 환경에 최적화된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아이씨티케이 (+5.37%)(618)

아이씨티케이, 콜드월렛 양자 보안 솔루션 개발 박차

아이씨티케이는 캐나다 양자 기술 전문 기업 BTQ 테크놀로지(BTQ Technologies, 이하 BTQ)와 콜드월렛 보안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정보인증 (+7.18%)(544)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기업공개 착수...기업가치 8조원

(25.05.27)업비트 찾은 민주당..."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측면에서 대응해야"

李-金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약... 전문가 "통화정책 흔들 우려"

대선 후보 캠프들에선 하루빨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김 후보도 대선 공약 중 일부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 장 후 시간 외 주요 사항 >

장 후 시간 외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을 보면서 당일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백 (NXT)(+25.79%)(424)

나이백, 美기업에 섬유증 치료제 기술이전...약 6000억원 대 빅딜

나이백이 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NP-201'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28일 공시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최대 4억 3500만달러(약 5952억원)에 달하며, 계약 상대방은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이번 계약의 파트너는 특발성 폐섬유증(IPF)과 폐동맥 고혈압(PAH) 영역에서 연구개발 및 상업화 경험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다. 나이백은 이 계약을 통해 NP-201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양도했다. 나이백 관계자는 "NP-201의 임상시험 및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물질 공급은 이번 기술이전과는 별도의 공급계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기술이전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출판사 (NXT)(+17.24%)(149)

[단독]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임박

업계에 따르면 더핑크퐁컴퍼니가 이번주 중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74억원, 영업이익 188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발목을 잡던 해외 자회사를 털어낸 한편 베베핀, 실룩(Sea Look)과 같은 후속 IP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삼성출판사 출신 김민석 대표(18.44%)를 비롯해 삼성출판사(16.77%)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39.80%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으로는 김진용 삼성출판사 대표의 동생인 김창수 F&F 회장(0.81%)과 차남 김우석 삼성출판사 이사도 포함돼있다. KT도 지분 9.17%를 들고 있다.

●삼릉물산 (+9.98%)(4) / 세림B&G (+9.98%)(0.8) / 에코플라스틱 (+5.12%)(11)

[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 이재명과 맞손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계와 정치권이 국내 생분해 시장 육성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위더스제약 (+5.59%)(27) / JW신약 (+2.99%)(2)

(25.05.28)'탈모 치료' 공약 만지작 소식에 탈모약 개발사 주가 쑥[Why바이오]

(25.05.28)"탈모 건보 확대, 이재명 재가만 남았다"...관련株 들썩[특징주]

● 온코크로스 (+5.04%)(67)

[특징주] 온코크로스, '피부 접촉없이' 자궁경부 암 조기진단 AI 기술 개발...유일무이 기술력 발표에 ↑
온코크로스가 그동안 침습적인 조직검사에 의존하고, 진단 정확도가 낮던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던 자궁경부암 진단시장에서 패러다임을 일으킨다. 온코크로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액 내 대사체 정보를 AI로 분석하는 비침습 진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번 연구 발표를 통해 해당 기술의 임상적 가능성과 차별성을 입증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 정상인과 자궁경부암, CIN 환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핵심 대사체를 선별한 이번 연구는 316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암과 CIN 각각에 대해 민감도 94.5%, 95.9%, 특이도 95.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검사 방식 대비 비약적으로 향상된 정확도로, 조기 암 스크리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비큐AI (+2.09%)(8)

퓨리오사AI, JW-코난 AI 넥스트리더 펀드 투자 계약...MDS테크·비큐AI 참여

● 하이브 (NXT)(-6.97%)(1472)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간 일정>

5월 29일 목요일

미국) 4월 잠정주택판매지수

미국) 1분기 GDP 수정치

금융통화위원회

과기부, 첨단 휴머노이드로봇 미래선점기술 개발 전략 포럼 개최 보도계획

과기부, 6G 전자파 잡는 초고성능 맥신 2차원 소재 개발 보도계획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30일).

에이아이코리아, 979,174주(12.35%) 보호예수 해제

GC지놈 공모청약(~30일).

신한스팩16호 신규상장

5월 30일 금요일

대만 증시 휴장

미국) 4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미일, 4차 관세협상

MSCI 한국지수 정기변경

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의원단과 한-미 협력방안 논의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2025(~3일).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30일).

블루엠텍 추가상장(무상증자).

KH 미래물산, 264,476주(5.36%) 보호예수 해제

탐런토탈솔루션 무상증자 기준일

하이퍼코퍼레이션 거래정지(자본감소).

GC지놈 공모청약(~30일).

5월 31일 토요일

OPEC+ 화상 회의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2025(~3일).

HLB글로벌, 705,219주(1.40%) 보호예수 해제

6월 1일 일요일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2025(~3일).

6월 2일 월요일

중국 증시 휴장

미국) 5월 ISM 제조업지수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 개최(~5일).★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2025(~3일).

부광약품 유상증자 기준일

키스트론 신규상장

<테마•개별 일정 Check>

△ 기존 일정

▲ 추가·수정된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 / 06.03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조기 대선'...6월 3일 잠정 결정

△제4회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회의 / 06.02~05

'LNG 개발' 알래스카 주정부... 6·3 대선일 '에너지 회의' 초청
美 압박에...정부, 대선날 '알래스카 에너지 콘퍼런스' 간다

△애플 세계개발자회의(WWDC) / 06.09

[IT썰] 애플 WWDC, 6월9일 개막...OS 초점 맞출 듯

△코스피200, 코스닥150 정기변경 / 06.13

코스피 대표 주자 코스피200, 이 종목 편입 가능성 ↑

△오토매티카 2025 / 06.24~27

첨단 헬스케어 로봇 모인다...내달 25~26일 獨 의료로봇 컨퍼런스 개최

△오징어게임 시즌3 공개 / 06.27

오징어게임 시즌3 출시일 확정..."6월 27일 공개"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풋옵션 행사 시한 / ~06 中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잔여지분 인수할까... 정의선 승계 영향은

현대차그룹은 소프트뱅크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6월까지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소프트뱅크의 잔여 지분 20%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WHO 성인 비만 치료에 관한 새로운 권고안 발표 계획 / 08 中

위고비·젠포바운드 힘? WHO "비만약 사용 권고" 예정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HO는 이르면 오는 8월 성인 비만 치료에 관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권고안에는 체중 감량 약물(GLP-1 계열) 사용을 치료 전략의 일부로 수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주의종목 >

[단기과열 예고]

[단기과열] 에너토크 한세엠케이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투자경고 예고]

[투자경고] 셀리드(5/27) 상지건설(5/26) 그린생명과학(5/26) 큐리언트(5/26) 인벤티지랩(5/26) 로보티즈(5/20) HD현대중공업(5/19) 파루(5/15) 유진로봇(5/14) 평화홀딩스(5/13)

[투자위험]

[매매거래정지 예고]

[매매거래정지]

< 차트상 관심주 >

[상승봉] 500 & 150억 봉

-(0일차) 대보마그네틱 애경케미칼 비큐AI MDS테크 온코크로스 엘앤에프 코오롱 포스코퓨처엠
메가터치 포바이포 한진칼 비트맥스 파워넷

-(1일차) 셀리드 코칩 한화 태웅

-(2일차) 인투셀 피아이이 필옵틱스 대화제약

[5~8일선] 두산에너빌리티 엑세스바이오

[15일선] 비에이치아이

[33~45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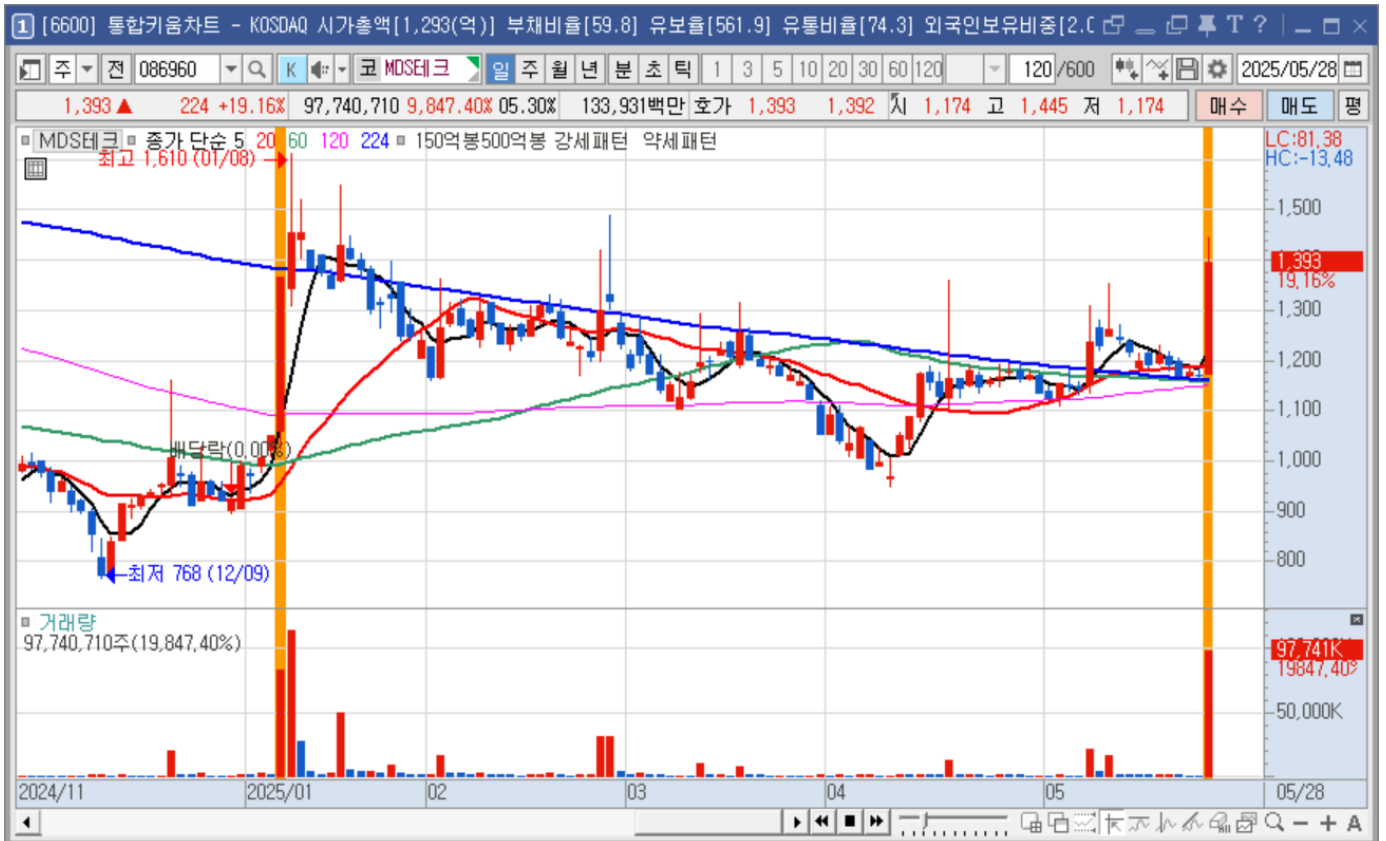
[12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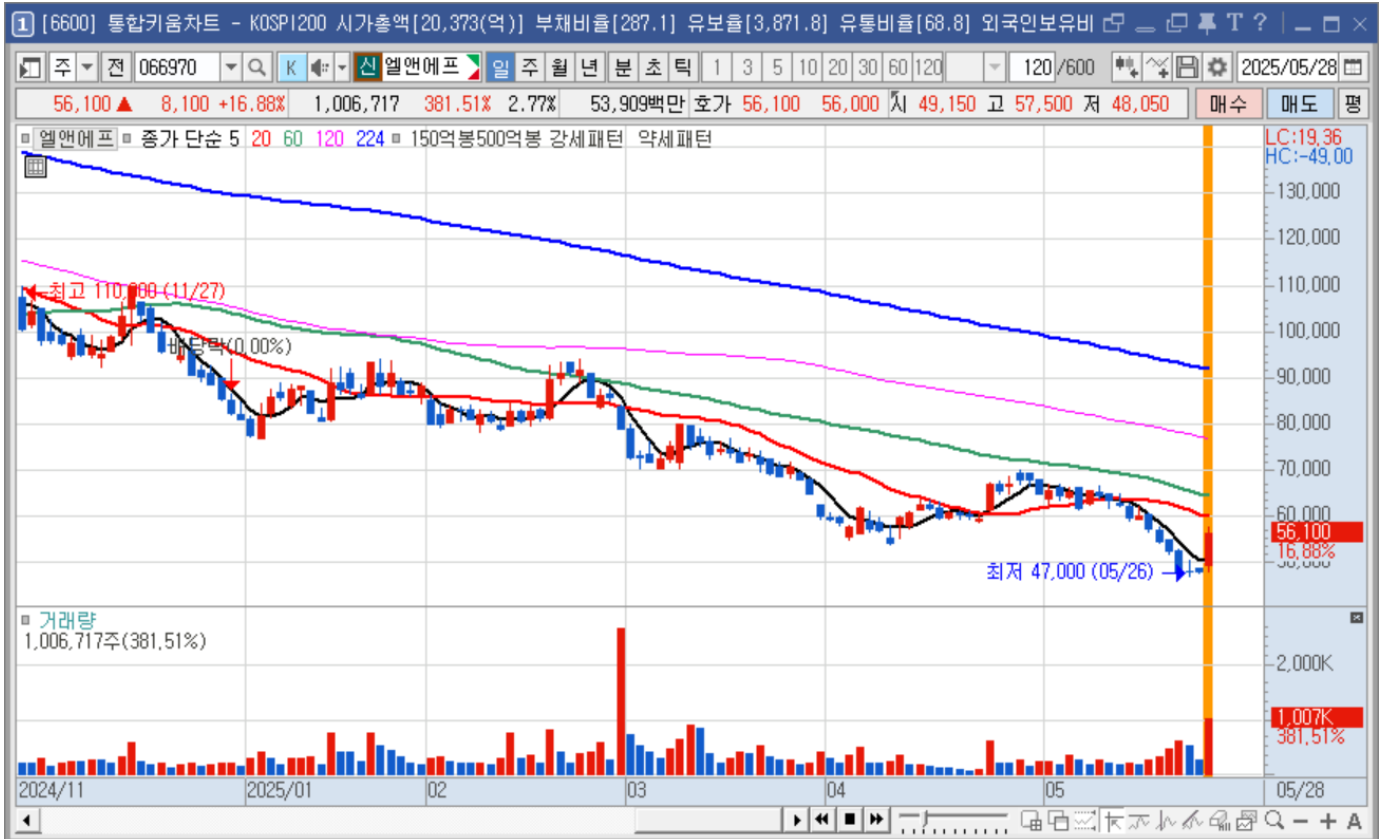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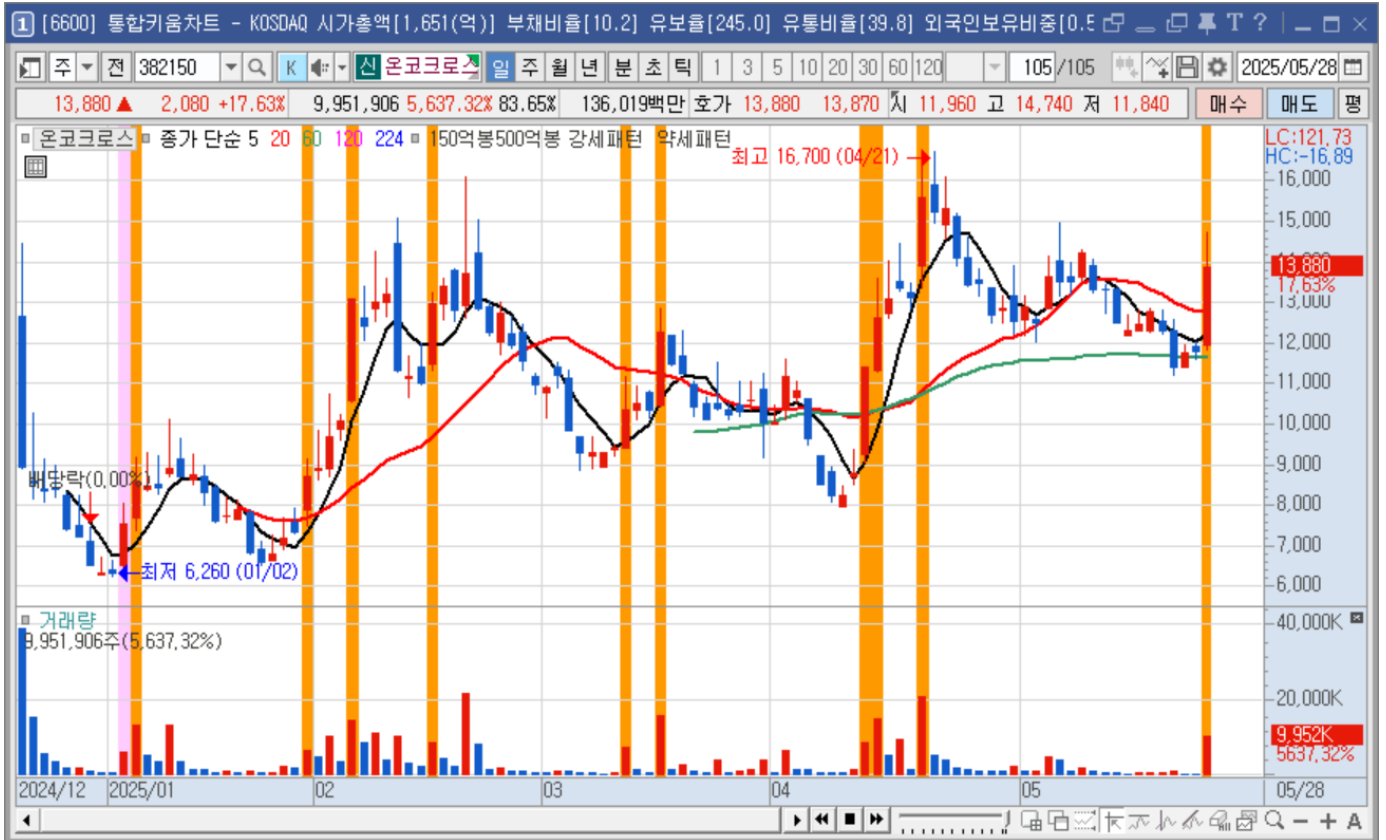
[바닥] 뽀아 케이엠더블유 한컴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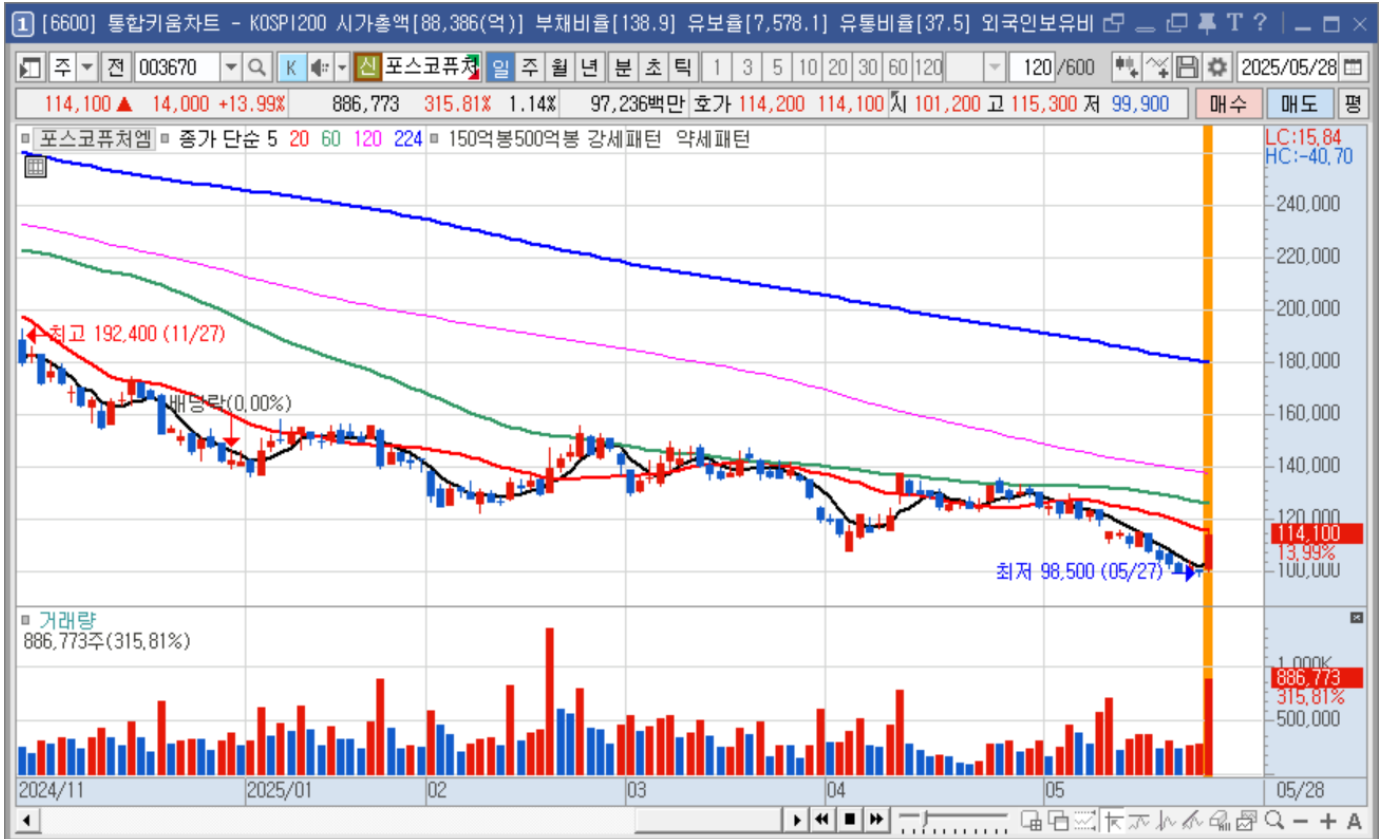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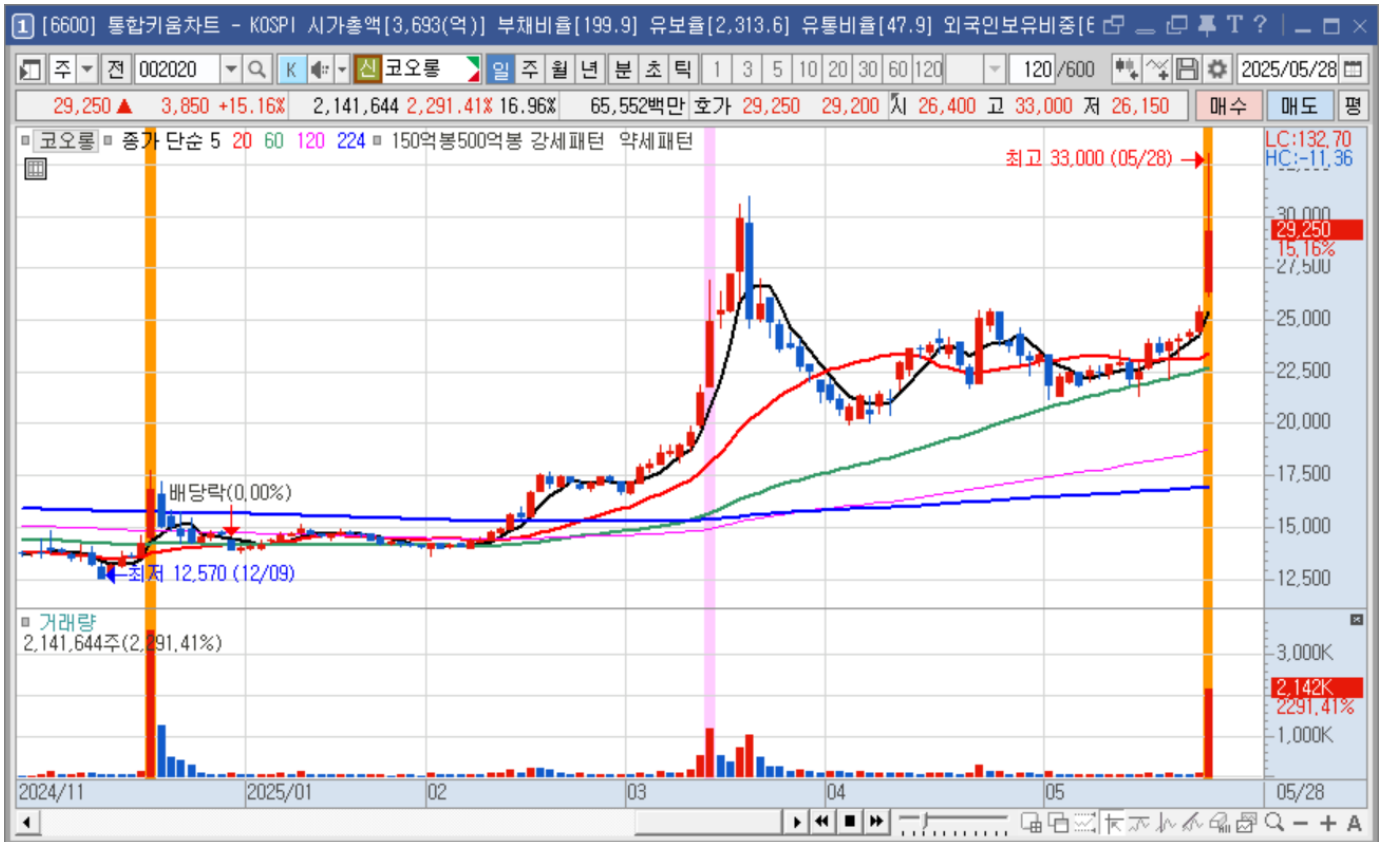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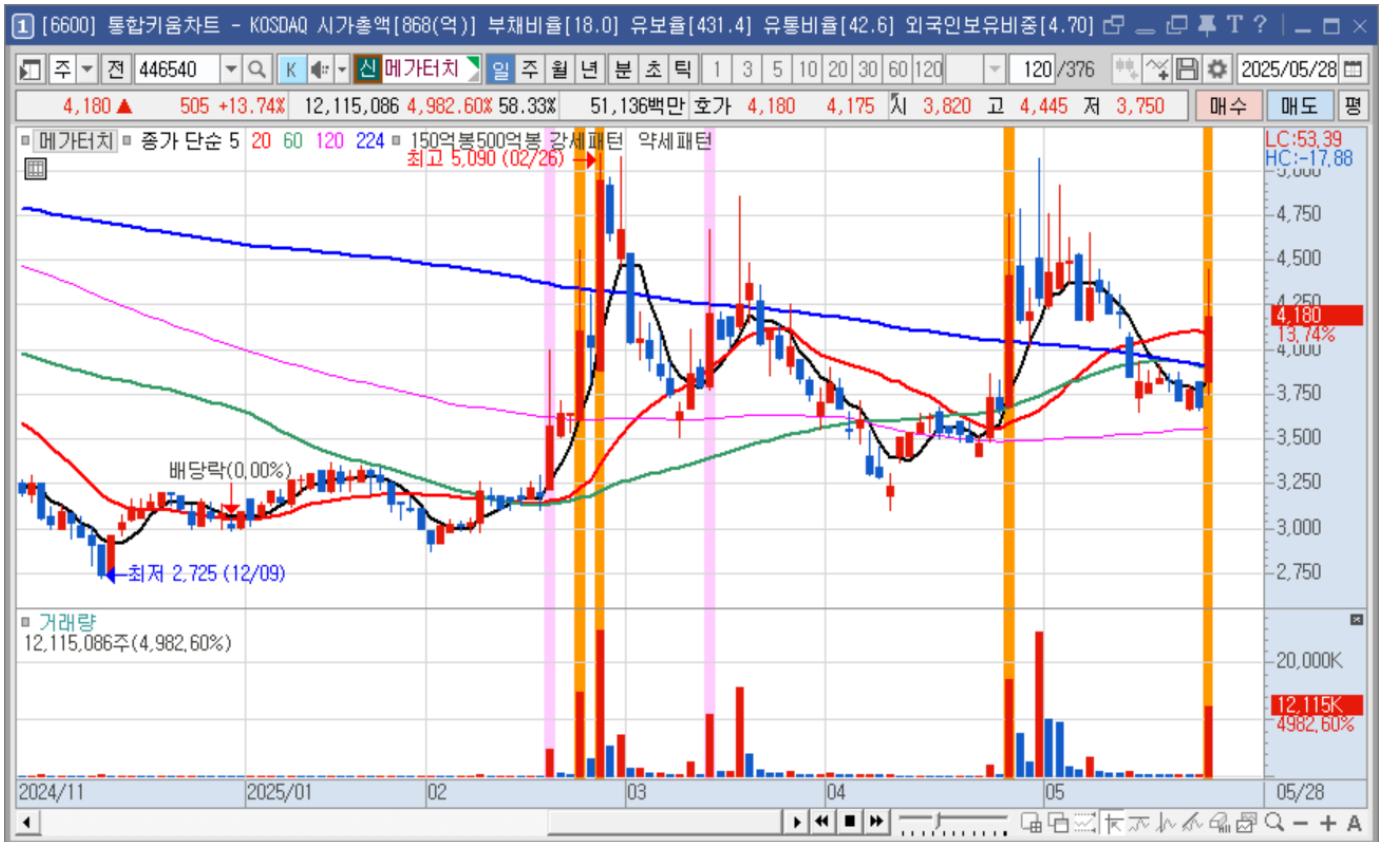
< 0일차 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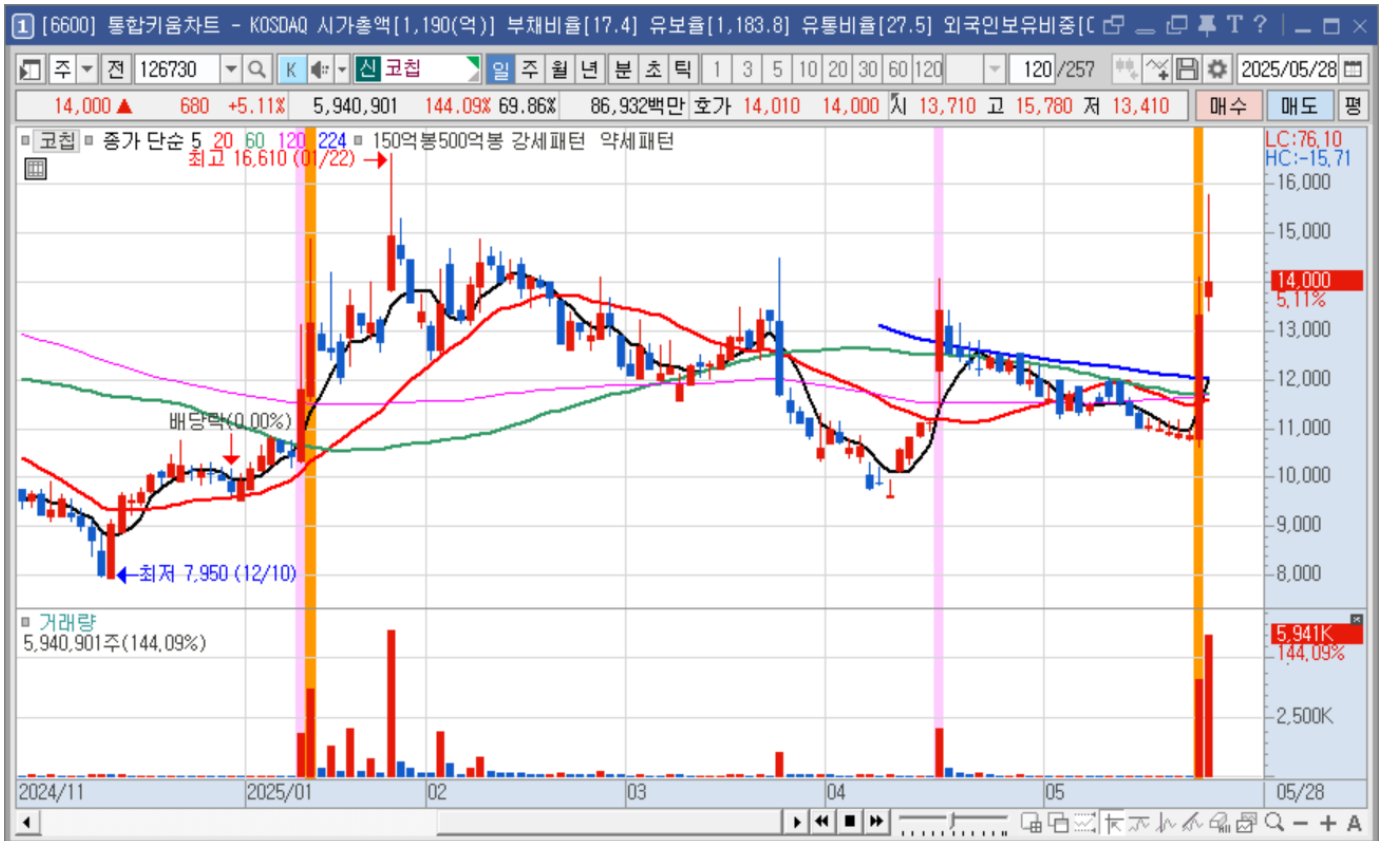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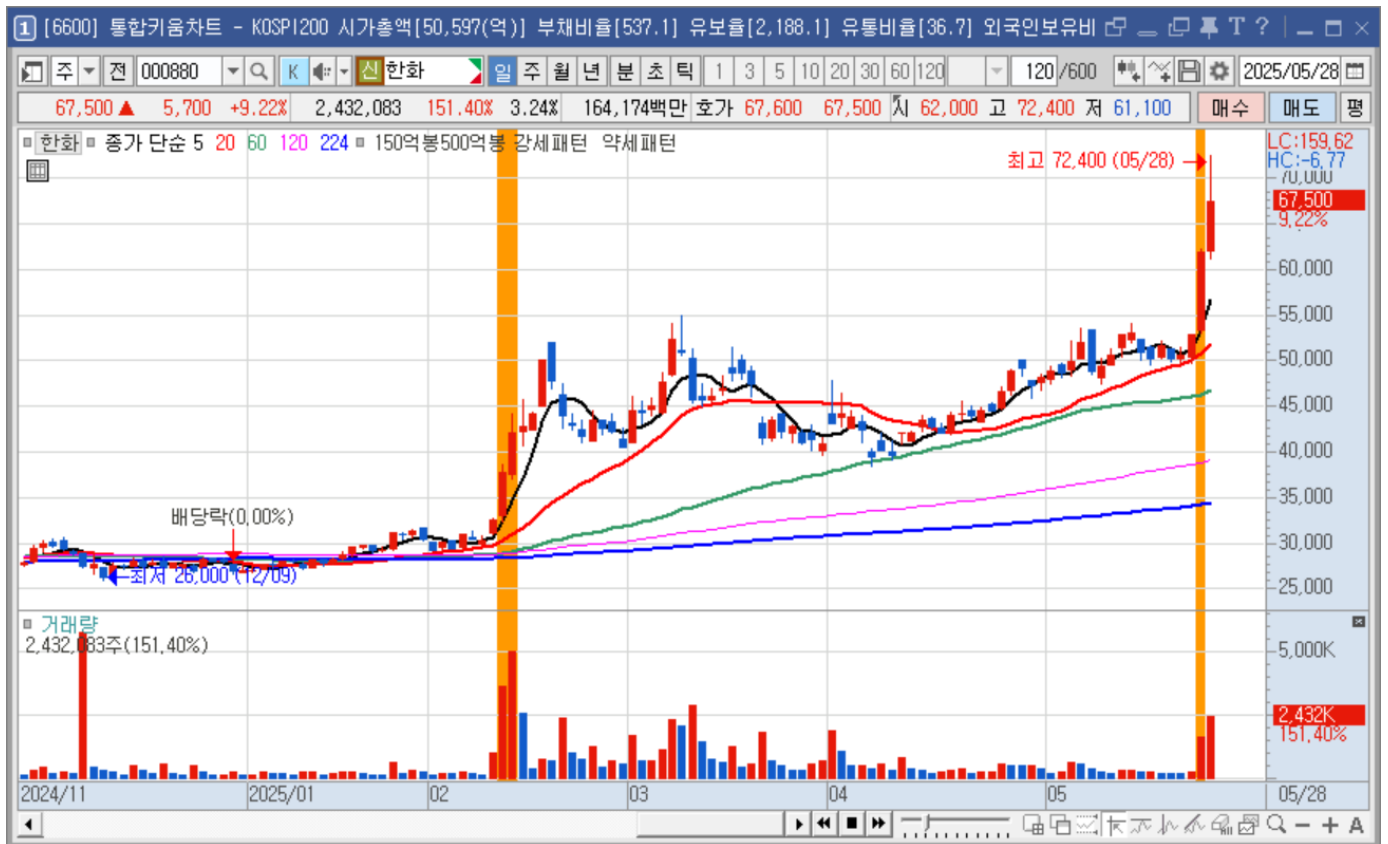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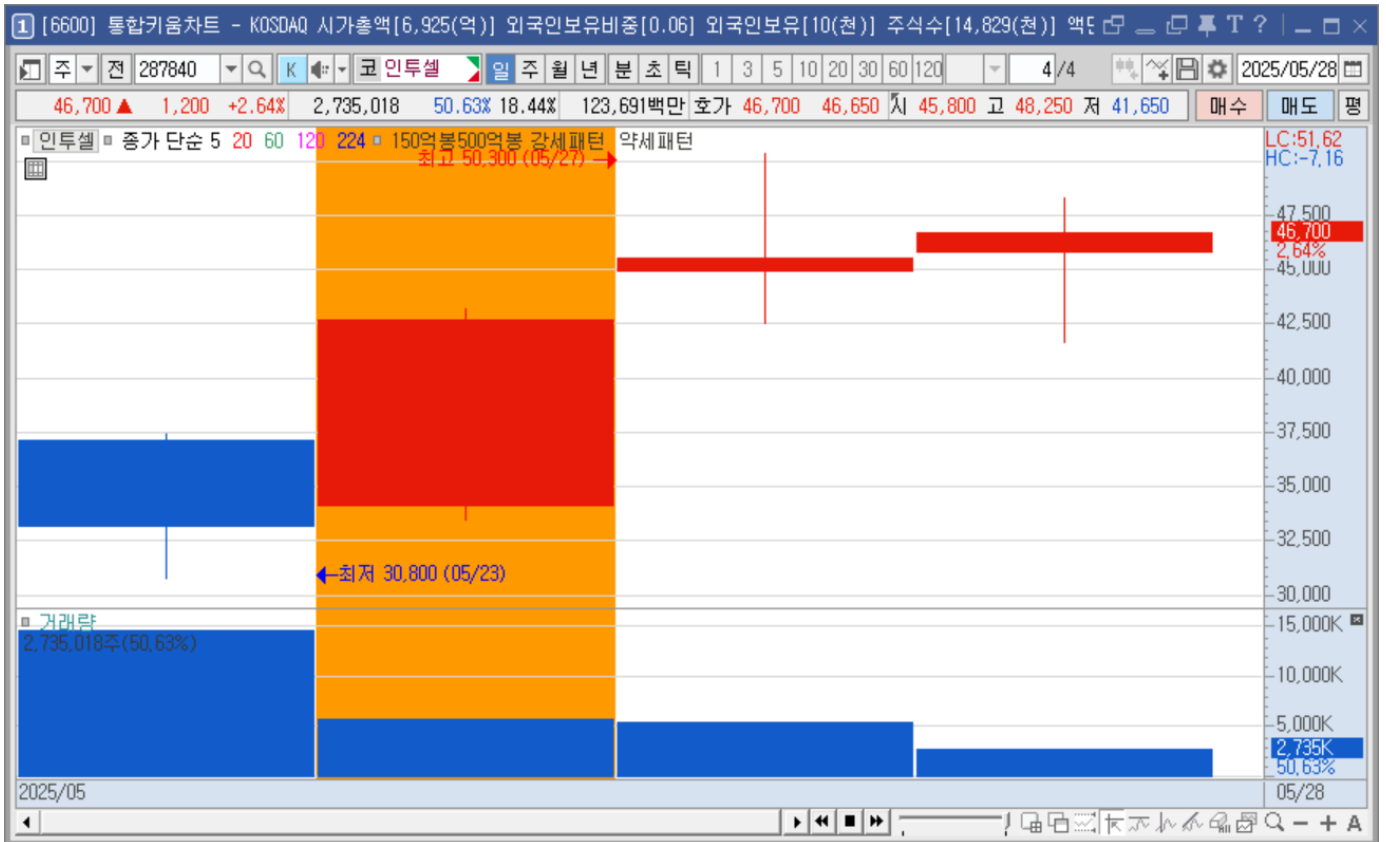


< 1일차 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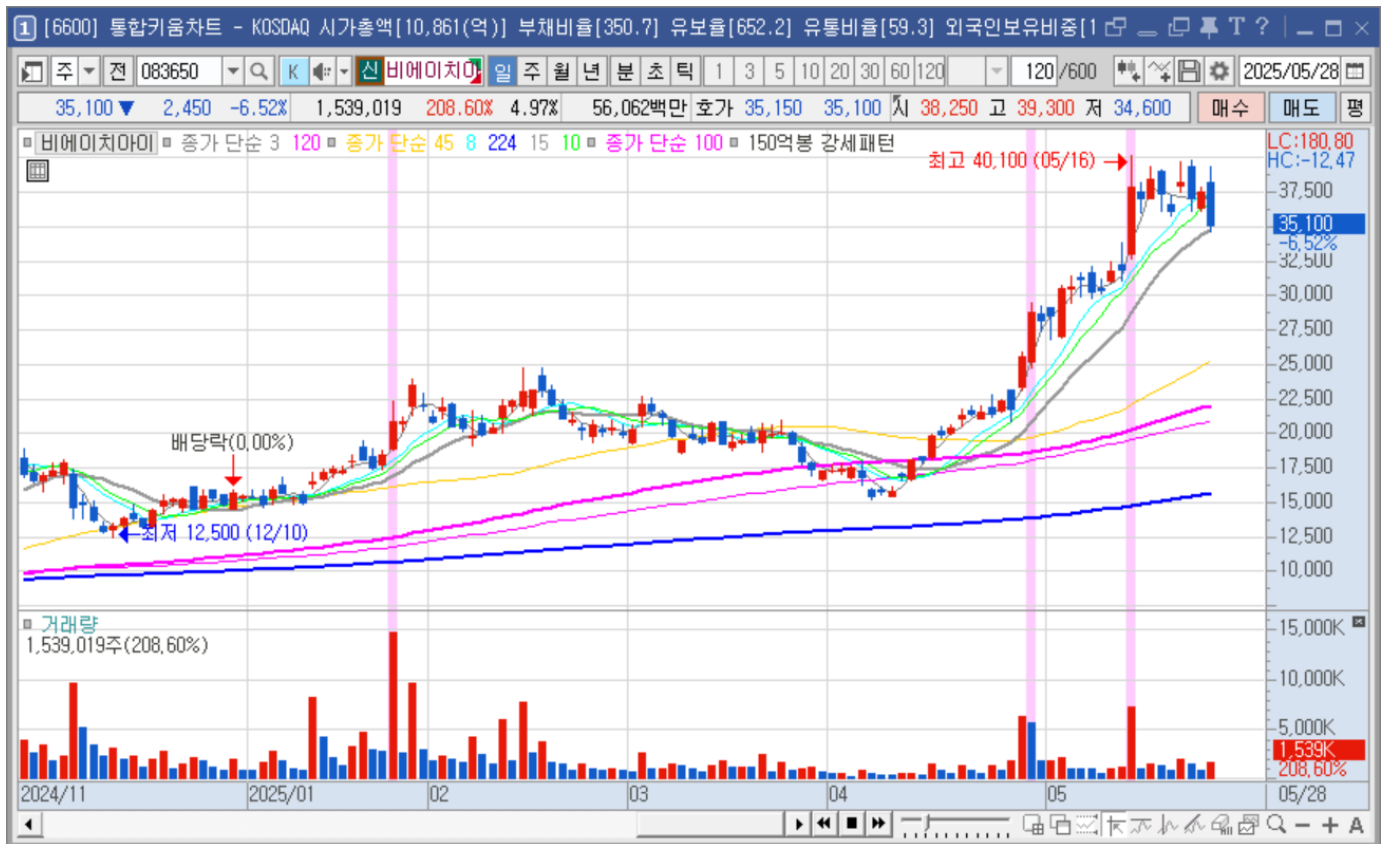


< 2일차 차트 >





< 15선 줌 차트 >



< 33 ~ 45선 차트 >

...

< 120선 차트 >

...

< 경제 일반 >

주요일정

5월 29일 금융통화위원회

5월 30일 MSCI 한국지수 정기변경

6월 9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장

6월 11일 보험사 자본비율(K-ICS·킵스) 감독기준 하향 조정

코스피, 2,670대로 올라 연고점 경신...코스닥 강보합(종합).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35억원, 7천42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개인은 9천91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68포인트(0.23%) 오른 728.7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51억원, 53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718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2천300억원, 6조5천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전날(7조9천90억원)보다 3조원 넘게 늘었으며, 코스닥 거래대금은 4천억원가량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원/달러 환율 7.0원 오른 1,376.5원 마감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2.314%

돌아온 외국인...반도체·원전株 집중 매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은 원화 강세 흐름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1개월 뒤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구간에서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밝혔다. 원화 강세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실질 투자 비용이 낮아지고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 유인이 높아진다. 이달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은 반도체와 원전 관련주에 집중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로, 1조 452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005930)를 1조 263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순매도한 것과 대비된다.

"이제 테슬라 대신 삼성전자에 장기투자"

삼성전자가 미성년 증권계좌 순매수 주식 1위 자리를 되찾았다.

28일 한국경제신문이 NH투자증권에 의뢰해 미성년 고객 계좌 27만 개를 분석한 결과 올 4월 이후 순매수 금액 1위 종목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금액은 이달 19일까지 약 15억4000만원이다. 올해 1분기 순매수 1위이던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은 3위로 밀려났다.

조선株 순항에...HD현대그룹 시가총액 100조원 육박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현대그룹 산하 10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97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 시가총액은 이날 장중 1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종가 기준 주요 그룹사 중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곳은 삼성(약 533조원), SK(226조원), 현대차(137조원), LG(127조원) 등 네 곳이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의 주가는 올해 들어 27% 올랐고, HD현대마린엔진[071970]과 HD현대미포[010620]의 주가는 각각 63%, 40% 상승했다.

이재명, 소액주주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사항 필요"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를 주제로 진행된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예외없이 소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약간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서 세밀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법수단으로 회사의 돈, 즉 주주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백기사에게 파는 등 처분 지배권이 있는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도 포함해) 가능하면 빨리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예외사항'을 언급하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기준금리 25bp 인하 예상"...환율 1376원 마감

한국은행은 하루 뒤인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은 한은 금통위가 현재 2.75%인 기준금리를 25bp 낮추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미만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이미 시장에서는 25bp 인하를 점치고 이같은 예상이 선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결정 자체보다 앞으로의 금리경로가 어떻게 제기될 지가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빚더미 오른 정부...'국채 관리' 밑그림 다시 짤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앞둔 정부가 국채를 어떻게 관리할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와 수급 등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 관리 재정비에 나서는 건 국가 채무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부산 제조업 체감경기 9개월째 '비관'...6월 전망도 '우울'

28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5월 부산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4월보다 3.8 포인트 하락한 93.8에 그쳤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주요 경영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주요 주가 지수

종목명 ▾	종가	고가	저가	변동	변동 % ▾	시간 ▾
 코스피지수	2,670.15	2,692.47	2,643.50	+32.93	+1.25%	28/05 
 코스피 50	2,414.48	2,432.75	2,380.99	+41.33	+1.74%	28/05 
 코스닥	728.79	733.48	727.60	+1.68	+0.23%	28/05 
 다우존스	42,098.70	42,448.72	42,042.26	-244.95	-0.58%	04:59:59 
 S&P 500	5,888.56	5,939.92	5,881.88	-32.98	-0.56%	04:59:59 
 나스닥종합지수	19,100.94	19,276.83	19,084.38	-98.23	-0.51%	04:59:59 
 러셀 2000	2,069.21	2,094.05	2,065.94	-21.19	-1.01%	04:59:58 
 CBOE VIX	19.30	19.43	18.68	+0.34	+1.79%	05:14:46 
 캐나다 S&P/TSX	26,283.45	26,336.34	26,239.82	+14.45	+0.06%	05:01:29 
 브라질 보베스파	138,888	139,547	138,580	-653	-0.47%	04:58:59 
 S&P/BMV IPC	58,735.86	58,992.18	58,409.80	+142.03	+0.24%	05:25:59 
 DAX	24,038.19	24,325.97	24,038.19	-188.30	-0.78%	00:38:59 
 영국 FTSE	8,726.01	8,799.77	8,726.01	-52.04	-0.59%	00:35:59 
 프랑스 CAC	7,788.10	7,853.66	7,787.58	-38.69	-0.49%	00:35:59 
 유로 스톡스 50	5,376.25	5,428.25	5,375.25	-39.20	-0.72%	00:38:34 
 네덜란드 AEX	924.41	930.58	923.31	-5.65	-0.61%	00:35:59 
 스페인 IBEX	14,100.60	14,262.50	14,094.80	-139.30	-0.98%	00:35:59 
 이탈리아 FTSE MIB	40,127.75	40,484.80	40,122.07	+2.85	+0.01%	00:35:59 

실시간 선물 가격

종목명 ▾	월물 ▾	종가	고가	저가	변동	변동 % ▾	시간 ▾
🇰🇷 금	2025년 8월	3,320.75	3,351.76	3,314.15	-7.55	-0.23%	05:40:44 🕒
🇰🇷 금/달러		3,295.61	3,325.45	3,288.86	-5.10	-0.15%	05:40:14 🕒
🇸🇰 은	2025년 7월	33.125	33.578	33.073	-0.186	-0.56%	05:40:28 🕒
🇺🇸 구리	2025년 7월	4.6840	4.7695	4.6655	-0.0560	-1.18%	05:40:01 🕒
🇺🇸 백금	2025년 7월	1,078.55	1,100.75	1,073.15	-0.75	-0.07%	05:40:16 🕒
🇺🇸 팔라듐	2025년 9월	970.50	992.25	966.25	-15.00	-1.52%	05:39:51 🕒
🇺🇸 WTI유	2025년 7월	61.87	62.53	60.85	+0.98	+1.61%	05:40:35 🕒
🇬🇧 브렌트유	2025년 8월	64.30	65.04	63.51	+0.73	+1.15%	05:40:27 🕒
🇺🇸 천연가스	2025년 7월	3.542	3.830	3.542	-0.202	-5.40%	05:40:37 🕒
🇺🇸 난방유	2025년 7월	2.0669	2.0933	2.0510	+0.0139	+0.68%	05:40:12 🕒
🇺🇸 가솔린 RBOB	2025년 7월	2.0625	2.0802	2.0464	+0.0145	+0.71%	05:40:12 🕒
🇬🇧 런던 가스 오일	2025년 6월	615.00	622.38	607.50	+5.50	+0.90%	05:39:47 🕒
🇬🇧 알루미늄		2,470.55	2,496.15	2,462.45	-12.90	-0.52%	02:27:21 🕒
🇬🇧 아연		2,688.60	2,712.50	2,679.20	-17.25	-0.64%	01:26:03 🕒
🇬🇧 구리		9,567.45	9,658.00	9,559.00	-37.55	-0.39%	01:26:58 🕒
🇬🇧 니켈		15,057.13	15,409.00	14,977.13	-314.75	-2.05%	01:26:16 🕒
🇺🇸 미국 소맥	2025년 7월	530.50	535.63	526.88	+2.00	+0.38%	03:19:59 🕒
🇺🇸 현미	2025년 7월	13.470	13.500	13.320	+0.140	+1.09%	03:19:55 🕒
🇺🇸 미국 옥수수	2025년 7월	450.75	462.90	450.10	-8.75	-1.90%	03:19:58 🕒
🇺🇸 미국 대두	2025년 7월	1,048.50	1,064.38	1,047.50	-14.00	-1.32%	03:19:59 🕒

< 경제/인구 구조 변화 >

< 부동산 >

[대선공약] 주택공급 목표·시기·방법 없는 '3無 부동산 공약'

당장 내년부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약집에서도 '공급 확대'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목표·시기·방법론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마저 제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 1기신도시 이주 無대책땀 재건축 늦춘다

분당신도시 이주 대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대출보증' 지원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자금줄'을 조절함으로써 재건축 속도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 국제 - 미중패권전쟁 >

美국방 "美, 중국과의 충돌 추구 안해...동맹과 함께 억지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을 포함해 누구와도 충돌을 추구하지 않지만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의 야심이 커졌다"고 진단한 뒤 "이 정부(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등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힘을 통해 평화와 억지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항모 랴오닝함 태평양 기동...日·대만은 감시·경계 태세

대만 국방부는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랴오닝함이 (대만) 남동 해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군(대만군)은 합동 정보 감시·정찰 수단을 이용해 전 과정을 파악하고 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중국 해군 함정의 활동이 날로 확대되고 활발해지고 있다"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clusive: China's most advanced bombers seen on disputed South China Sea island | Reuters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섬에서 목격된 중국의 최첨단 폭격기

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달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제도에 최첨단 폭격기 두 대를 상륙시켰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제스처를 중국이 경쟁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고 설명했다.

中, 유럽에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하나...업체 불러 정책 설명

중국 정부가 최근 유럽 반도체 공급망 업체들을 불러 모아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설명한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유럽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가 나왔다.

관영 중국일보는 전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가 다뤄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에 중국 판매 중지 명령"-FT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전자 설계 자동화(EDA) 기업에 중국에 대한 기술 공급 중지를 명령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칩 설계사와 제조사가 차세대 칩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서한을 받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멘스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트럼프 반도체 디자인 대중 수출 금지, 관련주 10% 폭락(상보).

< 국제 - 미국 >

주요일정

5월 29일 4월 잠정주택판매지수

5월 29일 1분기 GDP 수정치

5월 30일 4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6월 2일 5월 ISM 제조업지수

6월 4일 연준 베이지북 공개

6월 4일 5월 ADP취업자 변동

6월 4일 5월 ISM 비제조업지수

6월 5일 4월 무역수지

6월 6일 5월 고용동향보고서

6월 11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

Stock market today: Live updates

다우지수는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00포인트 이상 하락 마감: 실시간 업데이트

수요일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투자자들이 최신 실적 보고서와 연방준비제도(Fed) 회의록을 분석하는 가운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6% 하락한 5,888.55로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51% 하락한 19,100.94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44.95포인트(0.58%) 하락한 42,098.70으로 마감했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 - Investor Sentiment | CNN

Fear & Greed Index

What emotion is driving the market now?

[Learn more about the index](#)



U.S. Treasury yields: investors monitor U.S.-EU trade talks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5%를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달 초 열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회의 의사록을 기다리면서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주요 수준에 도달하는 등 수요일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6bp 상승한 5.002%로, 근접한 수준인 5%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491%로 약 6bp 상승했습니다. 2년 만기 수익률은 4bp 미만으로 상승하여 3.984%를 기록했습니다.

Dollar gains on trade optimism, yen slips

무역 낙관론에 달러 상승, 엔화 하락

수요일 미국 달러는 무역 협상이 미국 경제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이틀째 강세를 보였고, 일본 엔화는 정부가 4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약세를 보인 후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0.14% 하락한 1.131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엔화에 대해 달러는 0.33 % 강세를 보인 144.8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0.23% 상승한 99.75를 기록했습니다.

Mortgage rates rose to the highest level since January.

모기지 금리는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주택 구매자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포밍 대출 잔액이 있는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평균 계약 이자율은 6.92%에서 6.98%로 증가했습니다.

주택용자 채용자 신청은 한 주 동안 7% 하락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지난주에 전주보다 2% 높았습니다.

美 학자금 대출 연체율 0.8 → 8.0%...경제 발목 잡나

27일(현지시간)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작년 4분기 0.8%에서 올해 1분기 8.04%로 폭증했다.

대니얼 맵그럼 뉴욕연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년간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의 심각한 연체(90일 이상) 전환율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학자금 대출에서 연체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났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를 감안해 대학 학자금 부채 상환을 유예했다.

"트럼프는 항상 꿈무늬 뺨다"...美서 유행하는 신조어 'TACO'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줄임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늘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뜻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가한 뒤 시장이 급락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면서 시장이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런 용어가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자 신청 당분간 안 받습니다"...주한 美대사관 통보에 유학생들 '날벼락'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국무부가 유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활동을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 외교 전문을 입수해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 공부하려는 유학생을 상대로 한 비자 심사에 '사상 검증'을 추가하면서, 외국인의 미국 교육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엔비디아 실적 예상 상회, 시간외서 3% 급등(상보)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 시간외거래에서 3% 정도 급등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시간외거래에서 엔비디아는 2.94% 급등한 138.7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정규장은 0.51% 하락 마감했었다. 장 마감 직후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매출이 440억6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433억1000만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 국제 - 유럽 >

주요일정

6월 5일 EU)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결정

러 외무 "러·우크라 차기 협상 곧 발표"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회 안보문제 담당 국제고위대표 회의에서 "우리는 16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내 차별적 법률 폐지를 주장했고, 곧 발표할 다음 직접 협상에서도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회담 후 2차 협상도 이스탄불에서 열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관련주:

- 세계 1위 대동기어, '매년 1조 트랙터 수입' 우크라이나와 "세계 3대 곡창지대 재건"
- 대동, 우크라이나 현지 총판과 300억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 체결
- [특징주]SG, 지난해 수십배 조단위 매출목표 현실로...미리 준비한 우크라 재건 수혜
- 에스와이, '1200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동...현지 업체와 공장 설립
- 코오롱글로벌-에스와이, 우크라 재건사업 협력 업무협약
- CTT리서치 "전진건설로봇, 2025년 우크라이나 재건 빅사이클 수혜 전망"

- 우크라이나 뚫었다...현대에버다임, '드릴 크레인 트럭' 공급 개시
- [특징주] 대모, 헝가리 총리 "러, 우크라 5월9일 전쟁 종료" 선언에 재건주로 부각
- [특징주] 다산네트웍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소식에 上
- [특징주]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특징주]디와이디, 계열사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강세
- 다산네트웍스 다산솔루에타 주가 장중 상한가,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소식에
- 비에이치아이, 바르샤바 간담회 참석...우크라 재건 협력 논의
- 1200조 우크라 재건 수혜 기대되는 'K-모듈러 기업'은?
- [특징주] 자연과환경, 국내 최초 내장 마감일체형 PC모듈러 주택 기대감에 강세
- [특징주] 범양건영,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일환 모듈러 사업 요청 가능성에 강세
- [특징주] 스펜코, 尹 '우크라 지원' 의지에 강세... 재건 관련주 부각
- [특징주] 인디에프, 쌍용건설·글로벌세아와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에 강세
- [특징주]수산중공업, 우크라 재건 기대감 유압브레이커 등 점유율 1위 부각 上
- [특징주] 서연탐메탈, 우크라이나 차관 방한에 재건 수혜 기대감 上
- 대창단조, 두 달 새 60% 상승..."우크라 재건 기대감"
- [특징주] 동일고무벨트 급등.. 우크라 재건 기대감
- DS투자 "HD현대건설기계, 우크라 종전까지 추가상승...목표가 上"
- [종목이슈] 우크라 재건에 철강만 30조원 규모 필요...신스틸 '눈길'
- "우크라 재건 핵심요소"... 철도株,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
- 범현대家, 우크라이나 재건 뭉친다 [biz-플러스]
- [단독] 한미글로벌, 폴란드 전초기지 통해 우크라 재건 시장 진출
 - 한미글로벌, 중동 사업 확대부터 우크라 재건 기대-한양증권
- [특징주] 유신, 2000조 규모 우크라 재건 사업 본격화에 재건협력단 참여 부각
- 희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혜 기대
- [팩트폭격] 도화엔지니어링, 상장사 유일 우크라이나 진출..."전후 복구 사업 참여할 것"
- "上上上" 중소형 건설주 상한가 행진...이유는?
- 신영증권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주 수혜 전망"
- TYM,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과 재건 사업 협력 논의

젤렌스키, 푸틴·트럼프와 3자회담 요구(종합)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푸틴이 양자회담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모두가 3자 회담을 원한다면, 나는 상관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clusive: Putin, for Ukraine peace, wants a pledge to halt NATO enlargement, sources say | Reuters

푸틴의 평화 요구에는 NATO 확대 중단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조건에는 서방 지도자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쪽 확대를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서약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러 원유·우라늄 구입 땀 500% 관세"...제재카드 꺼낸 美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원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러시아 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준비 중이다.

법안은 러시아 원유와 우라늄을 구입하는 국가의 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이나 인도가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의 전쟁 기계는 멈출 것"이라며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준비 단계부터 백악관과 함께 조율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등 돌리는 미 공화당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소수의 공화당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러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지난달 리처드 블루먼슬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대러 제재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 국제 - 중국 >

[중국증시-마감] 기업 실적 부진에 소폭 하락

28일 중국 증시는 기업 실적 부진과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76포인트(0.02%) 하락한 3,339.93에, 선전종합지수는 5.58포인트(0.28%) 내린 1,965.45에 장을 마쳤다.

상하이 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사인 핀둬둬 홀딩스(NAS:PDD)의 부진한 성적표가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를 비롯한 업계 동종 업체들을 흔들면서 단기 수익 전망에 대한 우려가 강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로 중국 내에선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마진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中, IT 제조업 고도화 계획 발표...美 제재 맞서 자립화 초점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20쪽 분량의 방안은 일정 규모 이상 IT 제조업체의 핵심 공정 컴퓨터 제어화 비율이 2027년까지 85%를 넘어야 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중국은 또 이를 위해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를 100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방안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로봇틱스,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등 중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 진출 유럽 기업 71% "미중 무역 갈등보다 中 경기 침체가 더 걱정"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은 미·중 무역 갈등보다 중국의 국내 경기 침체가 더욱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 50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71%가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를 꼽았다.

"한국인 오세요" 비자 없애더니 결국...특단의 조치 내린 중국

중국이 유럽·동아시아·중남미 국가들에 잇따라 비자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동 4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6월 9일부터 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오만·쿠웨이트·바레인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중국 입국 비자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주도 국제중재기구 설립 조인식 30일 홍콩서 열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전문 기구 '국제중재기구'(IOMed) 설립 협약 조인식이 오는 30일 홍콩에서 열린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해 19개국이 참여하는 IOMed는 우호적 방식을 통한 분쟁 해결을 지향한다. 제로섬(zero sum) 또는 적대적 접근이 아닌 분쟁 당사국에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해 타협과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中 주도 AIIB, 싱가포르·홍콩 사무소 개설 추진"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다자 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계획대로 된다면 설립 약 10년 만에 최대 규모 해외 확장인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 국제 - 그외 >

주요일정

5월 30일 미일, 4차 관세협상

[도쿄증시-마감] 40년물 입찰 부진에 상승폭 반납 후 보합

닛케이225 지수는 전일 대비 1.71포인트(0.00%) 하락한 37,722.40을, 토PIX 지수는 0.02포인트(0.00%) 오른 2,769.51을 기록했다.

일본 주요 지수는 개장 초부터 꾸준히 상승폭을 좁혀 장 마감 무렵 전일 증가 부근까지 내려섰다.

특히 일본 재무성의 40년 만기 국채 경매가 투자 수요가 거의 없는 '부진한' 결과를 낳으면서 일본 장기 금리가 올랐고 이에 주식 매수세가 약화됐다.

이날 재무성에 따르면 40년물 국채의 평균 응찰률은 2.21배로 지난 3월 입찰 때 기록한 2.9배보다 낮아졌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40년물 국채 입찰도 부진...BOJ "금리 영향 주시"

주요국 국채 시장이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초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28일 시행한 5천억엔(약 4조7천억원) 규모 4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2.21을 기록,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았다.

직전인 3월 응찰률은 2.92였고 역사적 평균은 3인 만큼, 수요 부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일본은행 2024년도 국채 평가손 273조원...역대 최대

일본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도 결산에 따르면 올해 3월말 보유한 국채 잔고(취득가 기준)는 575조9천308억엔(약 5천759조원)이었다. 그러나 시가 기준 보유 국채 규모는 547조3천62억엔으로 무려 28조6천246억엔(약 273조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 채권 가격은 금리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일본은행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보유 국채의 평가 손실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본은행은 일반적으로 만기 때까지 국채를 보유해 시가 반영을 할 필요는 없는 만큼 평가손실로 인한 부정적 재무 영향이 당장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

日, 美와 관세협상서 "반도체 최대 10조원어치 구매" 제시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 관계자는 28일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미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제품을 염두에 두고 최대 1조엔(약 9조 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수입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DC)용 반도체를 미국산으로 최대한 수입하겠다는 입장인 일 정부는 자국 내 기업들 가운데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통신사나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구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산 반도체 수입 규모를 현재보다 수천억엔에서 최대 1조엔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예멘 공항 공습..."마지막 반군비행기 파괴"

이스라엘은 군용 항공기 10여대를 동원해 이날 요르단에서 이륙해 사나 공항에 착륙한 예멘 예메니아항공의 여객기를 폭격했다.

후티가 운영하던 항공기 4대 중 3대는 이미 공습을 받았고 이날 마지막 남은 비행기까지 파괴됐다.

< 원자재 >

주요일정

5월 31일 OPEC+ 화상 회의

6월 2일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 개최(~5일)★

Oil inches rises on supply risks, offset by expected OPEC+ output increase

공급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OPEC+ 생산량 증가로 상쇄될 전망

미국이 세브론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금지한 후 수요일 유가가 상승했지만, 이번 주 후반 OPEC+의 7월 증산 결정이 예상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67센트(1.05%) 상승한 배럴당 64.76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69센트(약 1.13%) 상승한 배럴당 61.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Gold firms as investors buy the dip ahead of Fed's meeting minutes

연준의 회의록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하락을 매수하는 금 회사들

금은 수요일 투자자들이 이전 세션에서 가격이 하락한 후 하락분을 매수하고 시장이 미국 금리 전망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연방 준비 은행의 최근 정책 회의록과 경제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 현물은 온스당 0.4% 상승한 3,312.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3,300달러 아래로 하락하여 전 세션에서 최저치인 3,285.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금 선물은 0.3% 상승한 \$3,310.60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내달 알래스카 '에너지 콘퍼런스' 참석...실·국장급 참석 고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3~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8일) "앵커리지주 측 초청에 따라 이번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장·차관이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실·국장급에서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전·재생에너지 등 최신 에너지 기술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약 1천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관련주

- 한텍, 트럼프 2기 시대...LNG 프로젝트 수혜 입을 것-한투
- [특징주]넥스틸, 美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요청...퀀텀 점프 기회 잡는다
- 트럼프 관세폭탄 대비한 강관업체...59조 에너지용 강관 시장 '다크호스'
- [특징주] "트럼프 정책에 정확하게 부합" 호평에 휴스틸 급등
- 하이스틸, 미국발 훈풍 타고 성장 기대감
- [특징주] 동양철관, 美석유협회 오일 가스 수송 강관 인증...포스코인터 공동 개발 강관 영일만 직 수혜 전망
- [특징주] 한선엔지니어링, 엑슨모빌 동해 투자 검토... 벤더 등록 부각
- 30년 밸브 외길 인생 장원규 화성밸브 회장 "오롯이 밸브 국산화 일념 뿐"
- 디케이락, 美 석유·가스 인증 현지 합작사 통해 대응..."유럽 방산 수출도 계획 중"
- 조선업 슈퍼사이클 올라탄 성광벤드, 상승 랠리 지속
- [특징주] 태광, 엑슨모빌에 제품 공급...석유-가스 시추 설비 필수 부품 생산에 상승세
- [특징주] 비엠티, 아람코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 검토...아람코 인증 가스 플랜트용 피팅,밸브 생산 부각
- 알래스카 가스관사업 기대감에 관련株 급등...한국가스공사 13%↑
- 포스코인터내셔널, 영일만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높아...목표가↑-대신
- [특징주] 우림피티에스, 2000조 규모 영일만 석유 가스전 개발 시추설비 적용 기어박스 개발...미국 시장 등 공급 중
- 오리엔탈정공, 트럼프 한국 LNG프로젝트 수조 달러 투자...수혜주 부각[특징주]
- [특징주] 일승,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조선업 지원 사업 수혜 강세
- [특징주] SK오션플랜트, 시추용 후육강관 수혜..."글로벌 오일메이저와 납품도 논의" 강세

< 국방 >

주한美사령관 "4500명 감축? 들은 바 없다"

앞서 WSJ는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은 한국 방어에 헌신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와도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 정부정책 >

주요일정

5월 30일 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의원단과 한-미 협력방안 논의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발표..."한국 CPTPP 가입 위해 협력"(종합)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 신뢰의 구축과 발전 ▲ 경제 연계 확대 ▲ CPTPP의 활용 ▲ 교류의 확대 등 4개 부문 합의가 담겼다.

< CO2 / 신재생 >

한수원 원전 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 가능성 제기..."무산 가능성 낮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체코 공영 라디오주르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현 정부 임기 종료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알라 총리는 "정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원전 계약이 미뤄지는 상황으로 인해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체코가 현재 전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체코 내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황"며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 간이 아닌 국가 간 사업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서명을 통해 업적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코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전력이 승패 좌우" 원전 뛰어드는 빅테크

AI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전은 기존 재생에너지 대비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크 기업들의 핵에너지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원전 부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빅테크들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이로스파워와 협력하고 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SMR 개발 스타트업 오클로와 협업했다.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솔트포스는 선박 형태의 부유식 원전에 SMR을 탑재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 피터 틸 팰런티어테크놀로지 회장, 데이비드 헬가슨 유니티 공동창업자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솔트포스에 투자한 게이츠는 직접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기도 했다. 테라파워는 345MW급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테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와이오밍주에 첫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14.7%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인 945테라와트시(TWh·1TWh는 한국 약 28만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592TWh)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 관련주:

◦ "원전의 TSMC"...AI시대, 물 만난 두산에너지빌리티[종목현미경]

▪ "AI發 전력 수요에 원전 수요 증가"... KB證, 두산에너지빌리티 목표주가 13% 상향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미 SMR 파트너사인 뉴스케일파워로부터 모듈 6기에 대한 소재 발주를 확보했고, 올해 중으로 기자재 12기, 소재 6기에 대한 수주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수원, 美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 오클로와 4세대 기술개발 협력
- 삼성물산, SMR 핵심기술 'SC 모듈' 실증...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 [클릭 e종목] "현대건설, 원전 부활 수혜 최선후주"
- 대우건설, 원자력 '종합 해결책' 갖춘 국내 유일 기업... "친환경에너지 경쟁력 강화"
- [특징주] DL이앤씨, 소형원자로 수혜 기대감에 1년 내 최고가
- [특징주] 한전산업, 프랑스 이어 영국까지 SMR 개발 사업 확대 방침에 강세
- "비에이치아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SMR 상용화 수혜 기대" - 그로스리서치
 - "비에이치아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뉴스케일 파워에 SMR 원자로 냉각계통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로 등록돼 있다"며 "해당 부품은 대형 원전과 달리 복잡한 외부 냉각 장치 없이도 자연 냉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SMR 설계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고
- [단독] 미국 SMR로 먹거리 넓힌 우진
 - 미국 SMR 프로젝트에 계측기를 납품하고 한국형 SMR 프로젝트에도 참여합니다.
 - 우진, SMR 핵심 기자재 개발 속도..."SMR 시장 개화 수혜 기대"
- 우리기술, 원전 독점기술 기반 SMR 분야 '첫 수주'
 - 두산에너지빌리티에 SMR(소형모듈원자로)용 DCS를 공급할 예정이다.우리기술은 국내 원전 DCS 분야 독점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유형의 원전에 계측제어설비(MMIS)를 독점 공급 중이다.
- [특징주]일진파워, SMR서 한발 더...'꿈의 에너지' 전 세계에서 주도 적극지원
- [특징주]수산인더스트리, 한미'SMR원전 협력' 국내 유일 원전기술 보유 '강세'
- [특징주]슈어소프트테크, 뉴스케일도 인정한 SMR 기술력...400조 시장 '선점'
- [특징주] 금양그린파워, SMR 본격 개화 소식에 'SMR 얼라이언스' 참여 부각
- 오르비텍, 'SMR 사업 그랜드 비전 포럼' 참여 "정부 사업 적극 동참"
- 우양에이치씨, '글로벌 플랜트 기업' 도약...SPAC 합병 상장 임박 [fn마켓워치]
- 한텍, 두산에너지빌과 원전 핵심부품 공동 제작..美SMR 확대 행정명령 초읽기 [특징주]
- [특징주] 태웅, 국내 최초 300MW급 SMR 부품 수주...트럼프 행정명령 앞두고 상승세

블랙록, 재생·청정에너지 관련주 반등 기대..."美 핵심 전력공급원 될듯"

블랙록은 27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AI(인공지능)의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블랙록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2030년까지 50~200%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6년까지 미국 발전 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024년 처음으로 석탄을 제치고 미국 에너지 믹스에서 우위를 점했다.블랙록은 또 "청정에너지 섹터를 압박했던 금리 상승과 관세 등의 악재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블랙록은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주식은 강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건설 속도가 빠르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블랙록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관련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SDN, 대명에너지, 에스에너지, 유니테스트, 신성이앤지, 국영지앤엠, 대성파인텍, OCI, 도화엔지니어링
- 풍력 관련주: 씨에스윈드, 씨에스베어링, 동국S&C, 스펜코, 유니슨, SK오션플랜트, 세진중공업, 우림피티에스, 포메탈, 서암기계공업, 삼일씨엔에스, 대창솔루션, 삼영엠텍, 케이피에프, LS마린솔루션, SK이터닉스, 지엔씨에너지

EU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5%에 거의 근접"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27개국이 제출한 '국가 에너지·기후계획'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30년 이 되면 1990년 대비 순배출량이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3년 예측치였던 51%와 비교하면 향상된 수치다.

민주당,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세운다...'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 공약 중 하나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 이재명과 맞손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대상과 사용처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EL724 등 환경표지와 퇴비화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물품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민간 인증 연계로 수요를 창출, 국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주

- [특징주]세림B&G, 생분해성 플라스틱 가파른 성장...미국 등 해외 수출 모멘텀
- [특징주]삼릉물산, '인류의 난제'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기술 첫 상용화
- 씨티케이, '탈 플라스틱' 선도한다...블루보틀에 '美 FDA 인증 원료' 완전 생분해 플라스틱 본격 공급
- [특징주] 한국팩키지, 미세플라스틱 인체유입으로 인한 '카톤팩'부각에 주가↑
- ASA소재 데코시트 시장 개척자 '진영', 6월 상장..."가구에서 건축·반도체·자동차로 전방시장 확장"
- [특징주] 무림SP, 中플라스틱 전면 금지시행...국내 유일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
- [특징주] 무림P&P, 플라스틱 컵 금지, 美 FDA 통과 및 유명 커피전문점 납품 부각↑
- [특징주]무림페이퍼, 씨티케이 급등에 탈 플라스틱 부각...유럽 최고시험 생분해성 인증
- [특징주] 한창제지, 땅속 완전 분해 종이컵...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금지 수혜 '↑'

< 미래차 >

테슬라-구글, 텍사스서 로봇택시 맞붙는다

테슬라는 다음 달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웨이모는 미국 전역에서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다.

거버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테슬라와 웨이모의 서로 다른 자율주행 접근 방식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다. 오스틴 출시를 계기로 로봇택시 분야에서 첫 맞대결이 펼쳐지며, 비즈니스와 경제성이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전용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중앙집중식 접근법을 채택한 반면,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이 탑재된 기존 모델Y 차량을 활용한 분산형 차량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 관련주

- [특징주] 퓨런티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출시 지역 확대에 '상한가'
- [특징주]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중국 테슬라 FSD 잠정 승인...자율주행 센싱 공급 이력 부각 강세
- [특징주]라이콤, 테슬라 '로보택시'에 라이다 채택 기대감..테슬라 파트너사 라이다 센서 수주 부각↑
- [특징주] 에스오에스랩, 테슬라 '세미' 라이다 센서 탑재 전망에 국내 유일 생산 부각
- [특징주] 모트렉스, 현대차 모셔널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에 강세
- [특징주]모바일어플라이, 670조 네옴시티 완전자율주행 세일즈...핵심기술 경쟁력 ↑
- [특징주] 라닉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실현' 성큼 로보택시 공개...세계 유일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조명
- [특징주]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차그룹 차량SW 급성장... 차량SW 테스트 도구 개발 부각
- [특징주]이지트로닉스, 국방연구과 '무인차량' 제품 실증...테슬라 'FSD'버튼 포착 주목
- [특징주]젼백스링크, 테슬라 中서 완전자율주행 실험 허가 소식에 강세 (포니링크)
- [특징주]모바일어플라이, 670조 네옴시티 완전자율주행 세일즈...핵심기술 경쟁력 ↑
- [특징주] 모트렉스, 현대차-구글 웨이모 '맞손'... 로보택시 주요 부품 공급에 강세
- [특징주] 라닉스,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대감에 '상한가' 직행
- 시지트로닉스, 실리콘 APD 센서 양산 기술 확보...수출 확대 기대

"배터리 산업, 中 저가공세에 위기... 한국판 IRA 서둘러야"

배터리 업계에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협회를 중심으로 최근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각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차기 정부 배터리 산업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박 부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세제 혜택을 담은 한국판 IRA와 같은 정책 제안을 골자로 배터리 산업기본법 제정, 초고자본·초고난도 배터리 기술 개발의 국책 사업 추진 등 내용을 담았다"며 "차기 정부는 대외 통상 리스크, 전기차 수요정체 등 복합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LG화학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배터리 실증단계 진입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팩토리얼 에너지(Factorial Energy, 이하 팩토리얼)'와 스텔란티스가 전고체 배터리의 차량용 성능 검증을 실시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며, 차세대 전기차 시대를 앞당길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G엔솔이 키운 나트리온, '美 최초' 리튬 이온 배터리 플래그십 분리막 공급

미국 배터리 소재 스타트업 '나트리온(Natrion)'이 리튬 이온 배터리용 분리막 판매를 개시한다. 첫 미국산 활성 분리막으로, 미국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자립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노조 "주4.5일제, 정년연장 해달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주 4.5일 근무제'와 '정년연장(60→최장 64세)' 등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 '형님' 격인 현대차 노조가 이 카드를 꺼내자 다른 기업들도 들쭉이고 있다.

< 조선/해운 >

日정부 '조선업 부활' 주요 정책과제에 넣을 듯

일본 정부는 내달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호네부토(骨太) 방침' 문서 초안에 일본 조선업의 부활을 넣었다. 조선업 부활 방안에는 차세대 선박, 자율운항 선박 등 개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네부토 문서는 일본 정부가 주요 정책 과제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골격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미일 공동 기금 설치, 미국 내 선박 수선 독 정비 지원, 쇄빙선 공동개발 등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조선 강국이던 일본의 조선업 경쟁력은 중국과 한국에 밀려 현재는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 '에너지 공룡' 골라LNG와 FLNG 건조 계약 눈앞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골라LNG(Golar LNG)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건조 계약 체결을 목전에 뒀다. 연간 최대 540만 톤(t)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FLNG를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골라LNG와 노르웨이 조선·해운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칼 프레드릭 슈타우보(Karl Fredrik Staubo)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세 가지 FLNG 제안을 받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韓 대표 철강-방산기업 '동맹'...함정 선체용 신소재 공동개발

포스코와 HD현대중공업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DEX)에서 '미래 첨단 함정 신소재 개발 및 실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망간강을 함정 선체 소재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 등 조선 분야에만 사용돼온 고망간강이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해양 방산 분야로 영역을 넓히게 됐다.

포스코에 따르면, 고망간강은 일반 선급강 대비 약 10% 높은 강도를 지녀 외부 충격에 강하고 선체 경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우주 항공 >

스타링크, 인도서 '박리다매' 전략 펼치나...초저가 사용료 검토

위성 인터넷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인도에서 '박리다매'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용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일단 스타링크는 인도 서비스 출시를 위한 승인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이스X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 시험발사, 또 실패

2차례 연속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공중 폭발로 타격받았던 스페이스X가 27일(현지시간) 3개월만에 또다시 스타십 로켓을 시험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우주선이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해 부서지면서 또다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X에 "이전의 두 차례 폭발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 3회에 걸쳐 3~4주에 한 번씩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시험발사를 가속화할 것을 다짐했다.

Joby Aviation shares pop after closing \$250 million Toyota investment

전기 항공 택시 제조업체가 2억 5천만 달러의 도요타 투자를 마무리하면서 조비 에비에이션 주가가 20% 급등했습니다.

전기 에어택시 제조업체인 조비 주가는 도요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힌 후 20% 급등했습니다.

이 자금은 이전에 발표된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증 및 상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조비에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약의 일부입니다.

< 삼성전자 / 반도체 >

주요일정

6월 10일 TSMC 5월 매출

NVIDIA Expected to Launch RTX PRO 6000 Special Edition for China's AI Market, Potentially Boosting Future GDDR7 Demand, Says TrendForce

TrendForce에 따르면 NVIDIA는 중국 AI 시장을 위한 RTX PRO 6000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여 향후 GDDR7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렌드포스(TrendForce)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발표된 새로운 미국 수출 제한에 따라 엔비디아의 H20 또는 이와 동등한 메모리 대역폭 또는 인터커넥트 성능을 가진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위해 RTX PRO 6000(구 B40)의 특별 저전력, 다운스케일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델은 원래 계획된 HBM 메모리에서 GDDR7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스퀘어, 美 반도체 소재 스타트업에 베팅...하이닉스와 시너지 기대

SK그룹의 투자 전문 계열사 SK스퀘어가 미국 반도체 소재 개발 기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기조 속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 그룹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의 해외 투자법인인 TGC스퀘어는 최근 미국 스타트업 누마트 테크놀로지스에 4000만 달러(약 560억원) 규모의 시리즈C 익스텐션 라운드에 참여했다. 시리즈 C 익스텐션 라운드는 기존 시리즈 C투자에 이어 같은 기업 가치로 추가 자금을 유치하는 연장 투자다.

장덕현 삼성전자 대표 "유리기판 시제품 곧 생산...연내 2~3개사 공급 타진"

장덕현 삼성전자 대표는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의 가동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연내 미국의 주요 빅테크 고객사 2~3곳에 샘플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을 구축,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체적 유리기판(글라스 인터포저) 공급망을 구축 중인 삼성전자와도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제품 공급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코어 글라스, 글라스 인터포저는 기술적으로 80~90% 유사한 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각사의 역할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기의 고객사"라고 설명했다.

• 관련주:

- [특징주]유리기판株 87배인데...글래스 핵심공급사 등극 캄트로닉스 '황금기회'
 - [특징주] 캄트로닉스, 삼성전자와 유리 인터포저 생산 협력 가능성에 상승세
- [특징주] 램테크놀러지,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TGV 식각액' 공동 개발 소식에 강세
- [특징주] 와이씨켄, '꿈의 기판' 반도체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 양산 평가 통과...고객사 공급 개시 강세

- [특징주] 국내 유일 TGV 장비 양산 필옵틱스, 삼성SDI 前 부사장 영입...유리기판 고도화·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특징주] HB테크, 유리기판 장비 공급개시...매출 최대 10배 ↑
- 제이앤티씨, 국내 최초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공장 완공..."하반기 양산"
- [특징주] 케이엔제이, 차세대 핵심 '유리기판' 삼성과 공동 특허 '↑'
- 미래컴퍼니, 유리기판 에지그라인더 점유율 전세계 1위... 삼성·SK HBM 국산화 기대감 '강세'
- 씨앤지하이테크, '차세대 반도체 핵심' 유리기판 데모 설비 본격 가동
 - 씨앤지하이테크, 자체 유리기판 공정기술 확보-그로쓰리서치
- [특징주]에프엔에스테크, 유리기판 공급망 진입 기대...식각 공정 기술 개발중
 - [특징주] 에프엔에스테크, 삼성디플과 공급계약 체결에 강세
- 레이저썬, 글로벌 고객사 요구 '꿈의 소재' 유리기판 테스트중...세계최초 면-레이저 기술 적용
- 한빛레이저, 유리기판 시장 급성장 각광... 유리기판 커팅 특허기술 보유 부각 '상승세'
- 야스, SKC 애플리케이션에 유리기판 장비 공급 개시...'꿈의 기판' 상용화 시동
- [특징주] 기가비스 주가 급등, SKC 유리기판 검사 장비 기술력 부각
- 아이씨디, SKC 유리기판 엔비디아 공급 시사...유리기판 양산 협력사 부각↑ [특징주]
- [특징주] 탑엔지니어링, 투자사 레이저애플 유리기판 공정단축 플라즈마 절단 기술 개발에 강세
- AP시스템, 'IMID 2021(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서 OLED 패널 생산에 최적화된 레이저장비 공개!
- [특징주]태성, CES 2025 호재에 급등..."유리기판용 에칭 장비 부각"
- [특징주] 인텍플러스, 美 인텔과 차세대 유리기판 검사장비 공동연구 개발소식에 ↑
- 토모큐브, AI반도체 '게임체인저' 유리기판 TGV 비파괴 검사장비 부각 '강세'
- 아바코, 세계최초 유리기판 사업 고도화 핵심 장비 개발...글로벌 장비 수주 협의중
- 나인테크, FO-PLP·유리기판용 습식 공정장비 개발 완료

이종우 "HBM 세정 장비, 10년 전부터 개발 착수...준비된 기업만 성장"

제우스, "우리가 만든 HBM 세정 장비 아톰과 새턴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쓰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시장이 성장한 건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HBM 시장이 너무 빠르게 커지면서 글로벌 메이커들도 뛰어들고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듯합니다."

"기존 실리콘 기판을 대체하는 유리기판과 특정 압력과 온도를 활용해 식각 공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온·고식각률 식각장비(PEP) 등을 개발 중입니다. 업계에선 두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2022년과 2024년에 회사 매출은 비슷해도 세부 구성이 다를 정도로 시장 변화가 빠릅니다. 당장은 이 시장이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에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AI / 로봇 >

주요일정

5월 29일 과기부, 첨단 휴머노이드로봇 미래선점기술 개발 전략 포럼 개최 보도계획

문제적 거물의 '맞손'...머스크 챗봇 '그록', 텔레그램에 탑재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최고경영자)는 28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텔레그램과 xAI는 10억명이 넘는 텔레그램 사용자에게 그록(Grok)을 배포하고 앱에 통합하기 위한 1년 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록은 머스크가 이끄는 AI(인공지능) 기업 xAI의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다. 이번 협력으로 텔레그램은 xAI로부터 총 3억달러(약 4128억원)의 현금과 지분을 받게 되며,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그록 구독료 수익의 50%를 받는다고 밝혔다.

• 관련주:

- [특징주] 폴라리스오피스, '그록3 출시' 테슬라 연동 AI 기능 탑재에 강세
- [특징주] 차이커뮤니케이션, 머스크 'X' 애플·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광고 재개 논의...X 공식대행사 수혜 기대
- 와이즈버즈, 日 현지 법인 설립... 해외시장 공략 나서
- [IPO출사표]모비데이즈 "대형 빅테크 매체와 파트너십 강점 살린다"
- LS일렉트릭 사상최대 실적...AI 특수에 '新황금기'

[단독] 카이스트, '샘 올트먼' 월드와 맞손...아시아 최초 AMPC 노드 참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이 설립한 블록체인 기반 인격증명 프로젝트 '월드(World, WL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카이스트는 다음달부터 아시아 최초로 '익명 다자간 계산(Anonymous Multi Party Computation·AMPC)' 노드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AMPC는 월드의 개발사 툴스포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TFH)가 개발한 오픈소스 보안 프로토콜이다. 월드의 홍채 인식 장치 '오브(Orb)'를 통해 수집된 생체 정보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하고, 이를 여러 독립된 노드에 분산해 연산함으로써 민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원 인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휴머노이드 상용화 당장은 어려워...부분 로봇부터 경제성 입증돼야" [서울포럼 2025]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 '초인간 혁명: 휴머노이드의 시대로' 세션에 나온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이사는 "휴머노이드가 한 번에 상용화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상체, 팔, 다리 로봇 등 특수 분야, 부분 로봇이 먼저 상용화 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한재권 에이로봇 최고기술책임자(CTO)도 "단계적으로 인건비 상승과 (휴머노이드 로봇) 비용 감소에 따라 기술도 진화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로봇 팔 하나가 두 개로 확장되는 협동로봇부터 바퀴가 달리면서 자율주행로봇이 되듯, 단계별로 발전해야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IT / 기술 >

주요일정

5월 29일 과기부, 6G 전자파 잡는 초고성능 맥신 2차원 소재 개발 보도계획

6월 9일 애플 세계개발자회의(WWDC)(~13일)★

< 가상자산 / 가상현실 >



Historical Values

Now	71
Greed	
Yesterday	74
Greed	
Last week	70
Greed	
Last month	54
Neutral	

[마켓인]미 국채 토큰 10조원 근접...엔비디아·테슬라 주식 토큰도 나온다

미국 주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미 국채·주식의 '토큰화'가 전통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블랙록과 시큐리티이즈가 공동 발행한 미 국채 토큰 'BUIDL(비들)'은 시장 점유율 40%를 넘기며 급성장 중이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도 토큰화 주식 플랫폼 '엑스스톡(xStocks)' 출시에 나서며 시장 확장에 나섰다.

대선주자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전문가들 "실효성은 글썄"

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 세계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497억 달러(약 342조원)로 이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2453억 달러) 비중이 약 98%에 달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축 통화가 아닌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법정 통화처럼 쓰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인데, 원화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겠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활용성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클레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장현국의 약속은 넥서스로 이어졌다

넥서스가 28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프로젝트 '클레바 AI'에 투자를 단행해 화제다. 클레바는 장현국 넥서스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클레바'는 위믹스 재단이 지난 2022년 1월 선보인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다. 위믹스 생태계에서 처음 선보인 디파이 서비스로 가상자산 위믹스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이자농사'가 주요 기능이었다.

< IP / 엔터 >

주요일정

6월 5일 닌텐도 스위치 2 출시

6월 11일 크래프톤 '어비스 오브 던전' 동남아·중남미 소프트 론칭

넷마블, 퓨처 게임쇼도 간다...'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트레일러 공개

넷마블은 내달 북미권에서 영향력이 큰 게임 쇼케이스 '퓨처 게임쇼' 참가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퓨처 게임쇼 공식 SNS 계정에서는 이번 여름 쇼케이스에서 넷마블의 오픈월드 RPG 기대작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BIO >

주요일정

5월 30일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2025(~3일)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 유럽 점유율 4년 만에 5배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맵)'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출시 4년 만에 5배 이상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 조사 기준 램시마SC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22%를 기록했다. 판매 1년 차인 2021년 4%에서 꾸준히 확대된 것이다.

나이백,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물질 'NP-201' L/O...'6천억원 규모'

나이백은 미국 소재 제약바이오 기업과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후보물질(개발코드명 NP-201)에 대한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이전하는 기술수출(L/O)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기술수출 계약의 총 규모는 4억3500만달러(약 5953억원)이며, 이중 계약금은 800만달러(약 109억원),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은 4억2700만달러(약 5843억원)다.

나이백은 NP-201의 상업화 성공 이후 누적 판매 마일스톤 달성 시 이후 60일 이내에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상업화 로열티(경상 기술료)는 NP-201로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4%로 설정됐다.

Geron Corporation - Geron Announces Presentations at ASCO and EHA Underscoring RYTELO® (imetelstat) Efficacy and Safety Across Range of LR-MDS Patients, and Showcasing Momentum of Myelofibrosis Program

Geron, ASCO 및 EHA에서 LR-MDS 환자 범위에 대한 RYTELO®(이메텔스타트) 효능 및 안전성을 강조하고 골수섬유증 프로그램의 추진력 발표

IMerge 임상시험의 새로운 사후 분석은 고리 사이드로블라스 상태, 기준선 혈청 에리트로포이에틴 (sEPO) 수치 또는 이전 요법 사용에 관계없이 저위험 골수이형성 증후군(LR-MDS) 환자에서 RYTELO의 임상적 이점을 보여줍니다

건강 관련 삶의 질(QOL) 데이터 및 수혈 의존 없이 적시에 결과(TWiTR)는 LR-MDS에서 RYTELO를 사용하여 환자 중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삼성메디슨, 美의료기기 업체에 지분투자..."초음파 진단기기 공동개발"

엑소는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삼성메디슨과 첨단 초음파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엑소는 "파트너십에는 삼성의 전략적 지분 투자가 포함된다"며 "차세대 초음파 플랫폼 개발 가속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삼성벤처투자는 6500만달러(약 890억원) 이상 규모인 엑소의 신규 투자유치에 참여했다.

'치명률 최대 75%'...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된다

아직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동남아 지역 방문 시 주의가 당부된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은 편에 속한다. 질병청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해 대규모 유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주요일정

5월 29일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30일)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

이재명 49.2%·김문수 36.8%·이준석 10.3%...'깜깜이' 직전 조사[리얼미터](종합)

[그래픽] 21대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대선 3자 구도 사실상 굳어져...후보들, 내일 사전투표 총력전

6·3 대선 유권자 87% "반드시 투표할 것"...3년전 대선과 비슷

마지막도 진흙탕...생중계 토론서 원색적 네거티브까지 등장(종합)

이준석, '여성신체 폭력' 표현에 "사과"..."정당한 질문" 주장도(종합2보)

김문수, '이준석과 단일화'에 "원래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이뤄져"

이재명 후보가 공개한 코스피 ETF 포트폴리오

< M&A / 주요 공시 >

IPO

5월 29일 신한스팩16호 신규상장

6월 2일 키스트론 신규상장

[단독] 방시혁, 투자자에 "상장 안해"...측근 PEF에 지분 팔도록 유도

면 금감원 조사2국은 하이브 기업공개(IPO)가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EF에 매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과 검찰 수사로 방 의장과 PEF 간 거래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면 당사자들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똑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금감원 조사와는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한기평, 형지글로벌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한국기업평가[034950]는 28일 형지글로벌[308100]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변경 사유로 한기평은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에 따른 저조한 영업실적의 지속을 꼽았다.

링크솔루션, 청약 경쟁률 1천999대 1...증거금 2조6천억 몰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3D 프린팅 업체 링크솔루션은 27~28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받은 결과 1천999대 1의 비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청약 증거금은 2조5천864억원으로 집계됐다.

링크솔루션은 앞서 희망가 상단인 주당 2만3천원으로 최종 공모가를 결정했고, 총 90만주를 공모해 공모 금액은 207억원이 될 예정이다.

[단독]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임박

유아용 콘텐츠 '아기상어'로 대박을 터뜨린 더핑크퐁컴퍼니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을 목전에 뒀다.

더핑크퐁컴퍼니는 2015년 선보인 '아기상어' 지식재산권(IP)을 통해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이에 힘입어 2021년 시리즈B 투자유치 당시 조 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기타 >